

中 증시 6% 곤두박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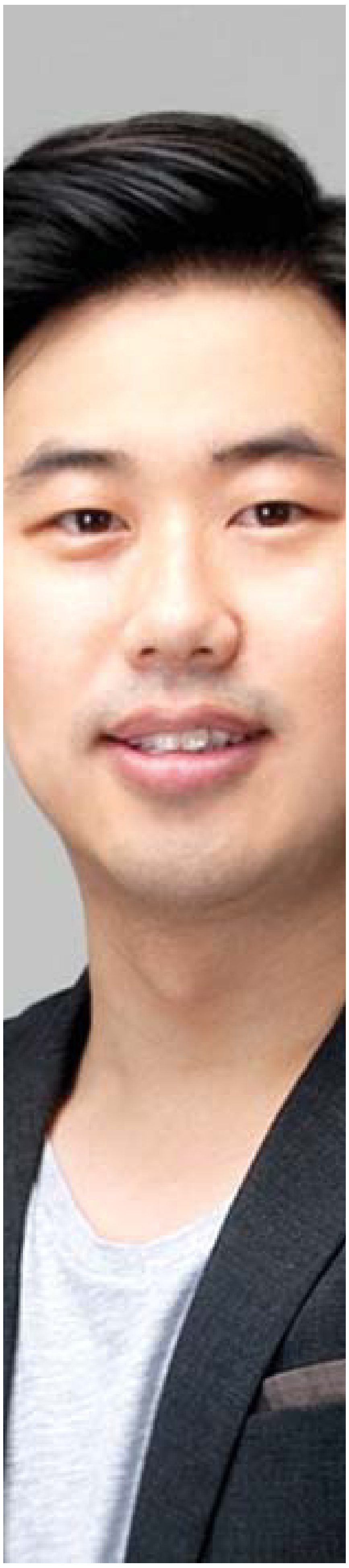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제3282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8일>

코스피 1965.26 (–12.26)	코스닥 699.80 (–22.21)
금리(국고채 3년) 1.72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84.50 (+1.50)

임지훈 임팩트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대표.

IT업계 리더십 물갈이 쓰나미… 30대 '모바일세대' 급부상
민첩성으로 승부… 빛의 속도 즐기고 리스크 감수성향 높아

IT(정보기술) 업계 최고경영자(CEO)직이 1970~1980년대 세대로 물갈이 되면서 포털·게임사에 속한 현 최고경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18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시가총액 8조 원에 이르는 IT기업 다음카카오의 CEO에 임지훈 케이큐브벤처스 대표(**왼쪽 사진**)가 내정됐다. 그는 1980년생으로 불과 36세의 젊은이다. 그의 손에 8조원 에 이르는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순한 어린 사장 교체가 아닌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세대교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30대 대표는 임 내정자가 처음이 아니다. 최근들어 IT 기업들이 30대 CEO 지휘 아래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30대는 어릴때부터 게임과 포털을 접하고 자란 세대로 경영전략과 시대의 트렌드를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변화가 빠른 게임산업과 소셜네트워크사업 등에서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대처 능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리스크 감수성향도 더 높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더 빨리 대응한다.

넥슨 고위 관계자는 "젊은 CEO가 기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이들은 훨씬 민첩하다"고 말했다.

과거 PC 중심으로 움직이던 IT시장이 최근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트렌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거나 수수료를 1000원씩 내며 전화로 불렀던 과거 일상을 한순간에 바꿔놨다. 스마트폰 터치 한번 만으로 눈앞에 택시가 도착해 있는 교통 생활의 변화를 이끌었다. 카카오택시가 생긴지는 불과 5개월이 안돼 콜택시업계 1위로 등극했다. 이처럼 감각적인 모바일을 기반한 IT 서비스는 생활 속 빠른 변화를 가져온다.

반면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서비스도 비일비재하다. 관련 사업의 흥망을 쉽게 가늠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조금만 뒤쳐졌다간 물먹기 일쑤이다가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잭팟이 터지기도 한다.

이 빠른 물결에 쓸려가지 않고 역으로 물살을 주도할 것이 기대되는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임과 포털 등에서는 이미 세대교체의 파도가 치고 있다.

엔씨소프트와 게임업계 1위를 다투는 넥슨코리아의 박지원 대표는 1977년생이다. 그는 2014년 4월 만 37세의 나이로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3년 넥슨코리아에 입사한 후 일본법인 경영기획실장과 운영본부장을 거쳤다. 그 후 일본법인 등기임원으로 글로벌사업을 총괄하며 넥슨의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에 상당한 힘을 보탰다.

NHN엔터테인먼트도 젊은 CEO가 이끌고 있다. 이 회사의 정우진 대표는 1975년생으로 2014년 2월 만 39세의 나이로 대표이사에 올랐다.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취임 후 간편결제서비스 '페이코' 출시, 보안 서비스 진출, 네오위즈인터넷 인수 등으로 게임사업의 부진을 만회하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대표부터 위메프 박은상 대표,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까지 소셜커머스업계 빅3는 모두 30대 CEO다.

하버드 출신의 1978년생 만 37세인 김범석 쿠팡 대표는 '로켓 배송'이라 불리는 급배송 서비스를 직접 도입시킨 인물이다. 이를 통해 '쿠팡 대세론'까지 나올 정도로 이미지를 제고한 쿠팡은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1981년생 만 34세인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지난 2012년 취임후 '200% 최저가 보상', '매일 슈퍼딜'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위 그룹이었던 티몬, 그루폰을 제친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신현성 티몬 대표는 1986년생 올해 만 31세다. 만 25세에 티몬을 창업하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셜커머스라는 개념을 알렸다.

젊은 CEO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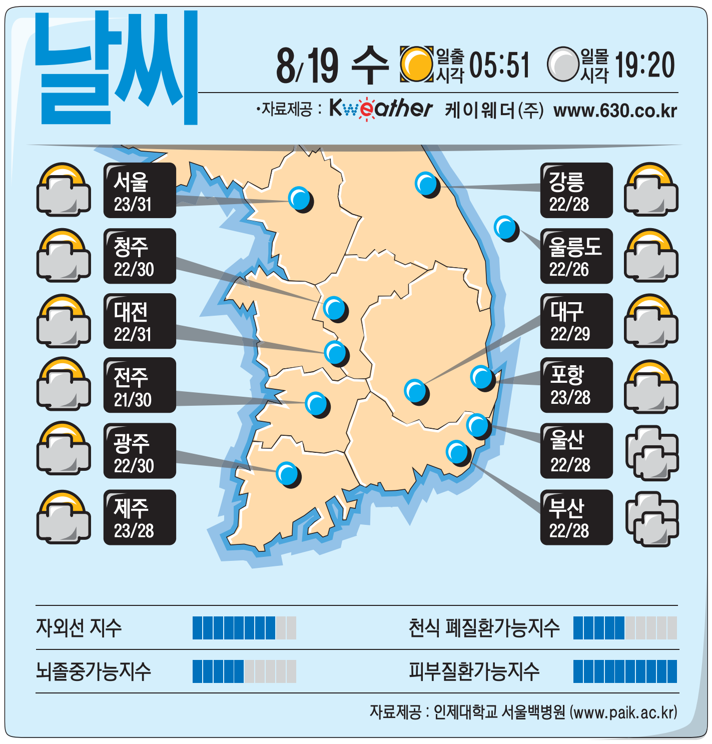
IT업계 관계자는 "IT기업 연혁이 짧다보니 젊은 CEO 등장은 자연스럽다"며 "구글과 소프트뱅크, 네이버처럼 회사 경영이 최대주주와 전문경영인으로 나뉘는 일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변화를 점쳤다.

젊은 대표를 우려하는 IT관계자는 "IT업계에서는 전문경영인이 2년 이상 못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연륜과 경륜을 뛰어 넘는 평판과 실적이 장수 조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T업계 창업 1세대로 불리는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의장,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85·86학번으로 벤처의 효시로 불리며 국내 1, 2위 포털과 게임 업체를 창업했다. 후에 젊은 창업자와 이공계 대학생들의 롤모델이 돼 벤처에 꿈을 심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석우·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각각 법무·재무담당 전문 경영인으로 1세대를 이어 2세대 IT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 등 업계는 젊은 CEO로의 변화를 이뤄왔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정치

▲ 
경북도청 신청사를 두고 '아방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호화청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새누리당**이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라면 올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병행 추진에 나섰다. 다만 일방적인 반(反)재벌 기류에는 반대했다.

▲ 정부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기영구 임대아파트**의 민간위탁 방안을 백지화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속 관리토록 했다.

▲ 선거기간에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댓글을 달 수 있도록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 SAMSUNG **삼성전자** 주가가 야심차게 공개한 갤럭시노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연중 최저점을 찍는 등 시장의 차가운 반응에 고전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하락을 거듭한 끝에 이제는 110만원대 방어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 금융권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올 하반기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는 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입과 인터넷전문은행 출현까지 전통 금융산업을 뒤흔들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타이어주** 주가가 올해 2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는 약세를 보이거나 오르락내리락하는 반면 비교적 양호한 '막내' 넥센타이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중국 건설사**가 최근 해외건설 수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평가를 절하하면서 우리 업체보다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 시공능력평가 42위인 **삼부토건**이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011년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4년 만이다.

▲ **금호타이어**가 상반기 저조한 영업실적을 거둔 데 이어 노동조합의 전면파업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하루에 약 52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의 장기화 조짐이 우려되는 가운데 3분기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

▲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플러스 두 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치열한 시장 경쟁을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플의 아이폰6S플러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 중국의 샤오미와 화웨이도 패블릿 신제품을 선보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IT업계 **최고경영자직**이 1970~1980년대 세대로 물갈이 되면서 포털·게임사 속한 현 최고경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순한 어린 사장 교체가 아닌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세대 교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 병환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대신한 이재용 부회장의 조문에 이어 **삼성 사장단**이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그동안 소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삼성과 CJ 가문이 이번 조문을 계기로 극적인 화해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맹희 CJ 명예회장이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다른 곳에 안장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화해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18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사진 교체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형제가 사이 좋게 일본은 내가, 한국은 동생이 담당하라고 아버지는 계속 얘기해 왔다"며 "더욱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일본·한국 양쪽의 사업을 총괄하라는 발언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지난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 이번 가을겨울시즌(F/W) 아웃도어 업계 키워드는 **아웃트로**(Outtro)가 될 전망이다. 아웃트로는 아웃도어(Outdoor)와 메트로(Metro)의 합성어로 도시인들이 일을 마친 후 곧바로 야외에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상품이나 의류를 통칭하는 말이다.

▲ 중소상인·노동자·시민사회단체들이 **롯데**에 대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생연대 등 10여 개 단체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 위치한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앞에서 '롯데 재벌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의 개혁 촉구와 함께 구체적인 요구안을 롯데 측에 직접 전달했다.



'연꽃 만개' 18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연못에 활짝 핀 연꽃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

▲ 
지난 17일 태국 방콕 도심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로 사망자가 19명으로 증가하고 부상자가 120여 명으로 늘었다.

▲ 중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의 산업경제와 금융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개혁안의 내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중국 톈진항에서 지난 12일 밤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로 퍼진 유독성 오염 물질이 **일본 열도**까지 날아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우리 환경부는 국내 유입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측이 톈진항에서 발원한 오염물질이 이미 동해에 진입했다고 분석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최근 영국에서 일본으로 국적을 바꾼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기사와 칼럼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구도로 바뀌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인도네시아 사고기의 **탑승자** 54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AF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기상 악화 때문에 발견한 시신의 운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12회 **에너지의 날**인 오는 20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5분까지 35분간 서울 전역의 조명이 꺼진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의무가 있는 기관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됐다.

中 증시 6% 곤두박질… 3주만에 최대 낙폭

추가부양책 축소 우려
亞 증시 일제히 '출렁'

중국 증시가 추가부양책 축소 우려로 6% 넘게 하락하며 3주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18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6.15% 급락한 3748.16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상하이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 오른 3999.13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후 장부터 5%대의 급락세를 보이다가 6% 넘게 하락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도 전일 대비 6.56% 내린 1만2683.86으로, 기술주 중심의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차이넥스트는 6.08% 하락한 2504.17로 장을 마쳤다.

상하이, 선전 두 증시에서 약 1600개 가까운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일시 거래중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개인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증시 급락은 주택가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축소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7월 70개 주요 도시 중 신규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곳은 31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7곳보다 4곳이 늘어난 수치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심리가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증시의 급락은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 일본, 태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2.26포인트(0.62%) 내린 1956.26으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700선이 붕괴됐다. 코스닥지수는 3.08% 급락한 699.80으로 장을 마쳤다.

위안화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하고, 다음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투자심리를 훼손한 것으로 분석된다.

태국 SE지수는 2%대의 약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 역시 0.32% 내린 2만554.47로 장을 마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이 신흥국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시장의 주가가 비틀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세계인의 관광지 방콕 '폭탄테러' 공포

사망 22명·부상 120명
CCTV 의심인물 추적중
관광산업 타격 불가피

세계적인 관광 1번지 태국의 방콕 도심 한가운데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관광대국 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해 외국인 등 관광객을 노린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전날 폭탄테러의 피해자는 이날 오후 현재 최소 사망 22명, 부상 120명에 이른다. 사망자 가운데는 태국인 5명, 중국인 4명, 말레이시아인 2명, 싱가포르인 1명 등 외국인 7명을 포함해 12명의 신원이 확인됐을 뿐이다.

앞서 태국 보건당국 관리가 필리핀인 1명도 사망했다고 보고했지만 필리핀 외무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CNN은 현재 태국 경찰이 CCTV에서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 남자를 발견해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폭탄테러는 방콕에서 발생한 것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전례가 없던 공격이라 누구의 소행인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하는 단체도 나오지 않고 있다.

태국 남부 말레이시아와의 접경지역에서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의 테러가 있어 왔지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공격은 아니라는 게 태국 국방당국의 설명이다.

현재는 태국의 불안한 정치상황과 연결지은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반년 가량 계속됐다.

당시 육군 사령관이던 쁘라윳 현 총리가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하고 집권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콕 시내 곳곳에서 소규모 폭탄테러가 있었다. 올해 2월에도 도심의 대형 쇼핑몰에서 폭탄테러가 있었다.



폭발물처리반이 17일(현지시각) 방콕 에라완 사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30분 관광객들로 붐비는 에라완 사원 옆 번화가인 라차프라송 교차로에서 폭탄 폭발사건이 발생했다. /AP 연합뉴스

이번에 폭탄이 터진 라차프라송 교차로 일대가 정치적 시위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라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CNN의 국제 문제 전문가인 바비 고쉬는 "현재 태국에는 군부의 지배에 반대하는 정치 집단들이 있지만 민주주의자들이라 폭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태국의 경제를 흔드는 일은 결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이처럼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폭탄테러가 태국의 경제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파장을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관광산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 중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산업이다.

테러 발생 하루 만에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태국 바트화 가치는 0.5%가 떨어졌다.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태국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실제 태국으로 향하던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올리버 스미스 여행 부문 편집장은 "폭탄 공격으로 많은 영국인이 여름휴가를 접고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일본에 팔린 FT의 변절

"韓·中 잘못, 아베 옳아"
소유주 닛케이 사설 추종



일본의 경제전문 일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지난달 24일자 헤드라인이 이 신문사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매수'로 장식돼 있다.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70년 담화를 두고 세계 양대 경제지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사설을 통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일본에 매각된 FT의 변절이 두 사설의 비교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WSJ는 17일자(현지시간) '아베의 뒤섞인 사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나 다른 일본의 친구들은 일본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보통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아베 총리의 염원을 공유한다"면서도 "아베 총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역사를 직시해야(face squarely)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구 열강이 일본을 고립시켰기 때문에 일본이 군국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는 게 아베 총리의 역사관"이라며 "야스쿠니 신사에도 과거 전쟁에 대한 비슷한 정당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이라면 WSJ와 크게 다르지않았을 FT는 이날 전혀 다른 사설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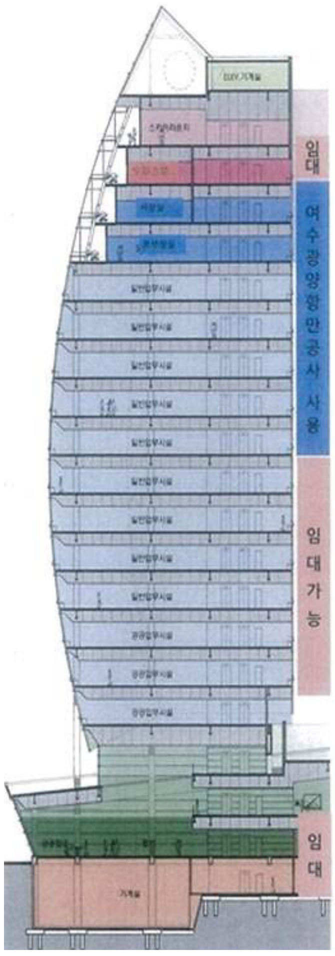
FT는 '아시아, 과거보다 미래에 중점 두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담화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비판은 과거보다는 온화했지만 국내용 어젠다에 맞춰져 있어 역사의 상처를 다시 건드릴 위험이 있다"고 한중 양국을 비판했다.

이어 "그것은 전진을 위한(바른) 길은 아니다"라며 "한중 양국은 똑같은 일제 침략의 피해자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들을 돌아봐야 한다. 그들은 전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선 안 되지만 이제 아시아는 미래를 위해 과거를 접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본은 70년간 적을 향해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고 평화주의가 확고히 정착돼 있다"고 평가하고, 고립으로 인해 전쟁의 길로 빠져들었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을 옹호했다.

FT의 사설은 '70년 담화를 근거로 무엇을 할지'라는 제목의 일본 경제지 닛케이의 15일자 사설과 일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FT를 인수한 곳이다. /송병형 기자

무조건 크고 높게… 공공기관의 혈세 사용법



월드마린센터.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텅 빈 공기업 '혈세' 호화청사
경북도 '아방궁' 신청사 이전

경북도청 신청사를 두고 '아방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의 호화청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구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의 호화사옥인 월드마린센터다. 공공기관의 호화청사 건축이 혈세 낭비의 주범이란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자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사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사는 773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는 2007년 5월 광양시 황길동에 347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19층, 총면적 1만8245㎡의 월드마린센터를 준공했다. 공사는 월드마린센터의 11층부터 17층까지 사무실로, 19층을 홍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경북도 신청사 조감도. /경북도청 홈페이지

그러나 공사의 부실한 운영으로 임대가능 면적 중 60.4%가 비어있는 상태다. 임대사무실 중 4층과 7층을 제외한 사무실 전체 또는 일부가 임대가 안 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숙박·사무를 위해 7개실로 조성된 오피스텔은 외국인 이용실적이 없다 보니 현재 2개실만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월드마린센터 개발계획안(2003년) 상의 적정 임대료 수준은 ㎡당 19만원이지만 공사는 저조한 임대율 탓에 임대료를 9만1140원에서 6만7000원으로 크게 낮췄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2008년도에 2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드마린센터 옆에 새로운 사옥을 추가 건립하려고 시도하다 반대에 부딪혀 유보했다. 입주자가 없을 게 뻔했지만 일단 크고 높게 짓고 보자는 행태다.

이 같은 행태는 지방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10월 대구에서 안동으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일대에 들어선 경북도청 신청사는 부지 24만5000㎡, 총면적 14만3000㎡에 달한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경북도는 신청사 건립에 총 3875억원을 투입했다. 이사비용에도 추가로 4억원 정도가 들 전망이다.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으로 경북도는 생산유발 21조1799억원, 부가가치 유발 7조7768억원, 전체 고용유발 13만6000여명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치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경기도, 대전시 등에서도 청사 건립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총사업비 4273억원을 들여 광교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설계비 130억원 뿐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빚을 내 청사를 지을 방침이다. 토지비 1427억원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건축비 216억원은 지방채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동구청사 설립으로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상태다. 7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동구 청사는 극심한 재정난 속에 오는 2022년까지 청사 건립비를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선거댓글 실명 없이 그냥 다세요"

여야 '인터넷 실명제' 폐지
지역감정 조장하면 처벌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명 없이 선거댓글을 달 수 있도록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영 새누리당 의원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경우 언론사에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게시물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이 해당한다.

여야는 이전 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포털사이트 다음은 18대 대선 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당했다.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18일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다음의 숙제를 풀어준 셈이다.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었다.

여야는 합헌이나 위헌의 관점이 아니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쓸데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정개특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선거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우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허위사실 및 왜곡사실 보도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또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병형 기자

새누리 "문제 있는 재벌 총수 국감장에 세우겠다"

노동·재벌개혁 병행 추진

새누리당이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를올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병행 추진에 나섰다. 다만 일방적인 반(反)재벌 기류에는 반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문제 있는 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 재벌개혁을 새누리당이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중요하지만 재벌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각 상임위원이 소신껏 활동해도 된다"고 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재벌개혁으로 맞서고 있다. 전날 재벌개혁특위 출범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닭이 있어야 알을 낳듯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더 많은 알을 한꺼번에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도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을 거명하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용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노동자는 새누리당의 적이 아니고 기업은 새정치연합의 적이 아니다. 여야와 노사의 상생이 이 시대의 요구"라고 거들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임대주택 민간위탁, 장기영구는 '백지화'

5·10년 임대 관리 '민간 개방'

정부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기영구 임대아파트의 민간위탁 방안을 백지화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반면 5년과 10년 임대, 50년과 국민임대 관리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약계층 주거공간인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공간의 공공성 등 강화를 위해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민간 위탁하지 말아 달라는 우리 당 요구에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정은 비교적 공공성이 떨어지는 5년·10년 임대 관리는 당초의 정부안대로 올해부터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50년과 국민임대에 대해서는 당장 개방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지역 단지의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윤정원 기자

사법부 규제에도 끄떡없는 전관예우

재판부 바뀌자 또다른 전관 변호사 선임
"변호사 업계 윤리조항 강화·각성 필요"

'전관예우 근절'을 무색케 하는 고위층의 전관·연고 변호사 선임이 뭇매를 맞고 있다.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상 이득을 보려는 이기적 행태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8일. 이날 법정에는 판사 출신으로 올해 법복을 벗은 박재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현 부장판사와 서울·인천·제주지법 등에서 한솥밥을 먹은 연이 있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애초 김 전 처장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되자 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최종길(법무법인 KCL) 변호사 등 10명을 선임했다가 법원이 지난 3일 재판부를 23부로 재배당하자 모두 사임한 바 있다.

고위층의 전관·연고 변호사 선임 논란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국무총리는 형사21부로 사건이 배당된 후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형사22부(장준현 부장)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전관·연고 근절을 위해 지난달 20일 재판장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소속 법관과 변호사의 연고로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김 전 처장과 이 전 총리는 첫 조치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이 이를 무시하듯 또 다른 연고 변호사 선임으로 맞대응에 나서자 변호사 업계의 윤리적 문제도 불거졌다. 한차례 재판부를 변경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배당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으로는 연고 변호사 선임을 막거나 징계하기 어렵다"며 "법원과 담당 재판부는 (연고 변호사를) 자진 회피하고, 변호사 업계는 윤리 조항을 강화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적으로 얽힌 법조계에서 법원이 이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전관예우는 없어져야할 병폐다. 전관들의 비리가 발견되면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처서 앞두고 탐스럽게 매달린 포도 처서(處暑)를 앞두고 18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의 만나포도원에서 농민들이 탐스럽게 달린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法 "예상된 성추행, 적극 저항 안하면 처벌 못해"

'기습' 당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 예상

예상된 성추행에 적극 저항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행에 강제성이 없다면 '기습'을 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 B씨의 몸을 만지고, B씨가 다른 방으로 옮기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첫 번째 성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뒤이은 추행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전형적인 강제추행은 아니고 강제추행의 일종인 '기습추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가 언니에게 형부 A씨의 행위가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B씨가 잠들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A씨가 바로 행동을 멈춘 점, B씨가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A씨를 피해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려 했기에 뒤따라온 A씨가 자신을 계속 추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두 번째 행위가 기습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여성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수상한 낌새를 보인 남성을 경계해 자리를 피했지만 결국 이 남성이 따라와 몰래 몸을 더듬었고, 이 여성이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현실을 외면하고 너무 기계적인 법적 해석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나온다. /연미란 기자

경찰, 10월말까지 경제질서 교란행위 단속

경찰청이 오는 10월 말까지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분야는 ▲창업·영업활동 방해(창업·프랜차이즈 사기, 가짜 상품 판매, 업무·입찰방해) ▲경제적 신뢰훼손 행위(전화금융사기, 보험범죄, 대포물건) ▲불법 지하경제(불법 대부업, 불법 외환사범, 유사수신·다단계) 등이다.

경찰은 이 중 보험사기와 가짜상품은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험사기는 지방경찰청과 1급지 경찰서에, 가짜상품은 서울 동대문, 부산 국제시장 등 대도시 주요 지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불법 대부업, 불법 다단계 등 인허가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행위를 통보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홍원 기자 hong@

연예인 등 고소득자, 연금 체납액 4322억원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43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걷힌 금액은 11.1%인 481억원에 불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6910명이 올 6월까지 체납한 금액이 4322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자란 5개월 이상 연금을 내지 않은 종합과세금액 연 23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의미한다.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과 징수관리는 2011년에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자 중에는 일반자영업자가 8만60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만 4272억원에 달했다.

프로 운동선수(396명)의 체납액은 25억6100만원, 연예인(330명) 18억9800만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90명)은 5억2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미란 기자

檢 '납품업체 뒷돈 의혹' 주한미군 수사

주한미군이 부대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미8군에 속한 군무원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국 국적인 A씨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군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질병관리본부, 독립 대신 차관급으로 격상

복지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발표
감염관리 우수한 병원에 '인센티브'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관련 감염 방지대책(안)'을 마련한데 이어 18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처(청)로 독립시키지 않고 복지부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서재호 부경대 교수는 "보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분리하기 어려워 보건부를 떼어내기 어렵고, 질병관리처나 청으로의 승격은 자치단체 협력을 얻기 힘들다"면서 "복지부 아래에 계속 두되, 현재 1급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가 발표한 안은 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여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1~4단계(관심~심각) 전 과정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범위나 방향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줄 계획이다.

또 질본 내에 '공중보건위기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산하에 감염병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공중보건상황실(KEOC)'를 두기로 했다. 필요시 광역자치단체 연락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의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중국·일본 등에도 연락사무소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의 공항·항구에 설치된 국립검역소가 해외 감염병 유입의 전초기지인 점을 감안, 국립검역소의 감염병 진단 기능을 확충한다. 환자가 대량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격리·후송 훈련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메르스 후속조치로 일선 병원의 감염 관리 수준을 평가해 '열심히 잘 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마다 음압격리병상을 대폭 확충하고, 병원 내 감염의 원흉으로 꼽힌 '북적이는 병실'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시행 등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제 수준'에 맞춘 감염 관리 평가 항목에 따라 각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수준을 평가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일정 수의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음압 병상 등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조기 확대가 추진된다. 이 서비스는 병실에 별도의 보호자가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요원이 환자의 간병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추가 간호 인력은, 현재 일터를 떠난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도와 확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복지부는 또 병원의 6인실 보유 의무를 폐지하고, 신설 병원의 경우 입원실 병상 수를 4개로 제한해 병상 사이 거리를 국제 수준으로 넓히는 등 입원실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메르스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등 '빅5'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감염 발생 실태 조사를 벌여 소아 중환자나 투석 환자 등의 감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강동소방서, 어린이집 소방안전체험교육 강동소방서는 18일 오후 관내 어린이집 원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요양원, 사고 방치시 배상 책임 있다"

法,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법원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위탁노인이 낙상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요양시설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방에 있는 한 노인주거복지시설(요양원)에서 숨진 A(사망 당시 82세·여)씨의 자녀 5명이 이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47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상태였다. A씨의 딸은 2013년 8월 A씨를 이 요양원에 맡겼다.

그러나 A씨는 이곳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당시 야근자였던 요양보호사 김씨는 A씨의 방으로 가 어디가 아픈지 물었고, A씨가 목 뒤가 아프다고 하자 냉찜질을 해줬다. 그러나 A씨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어 보이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A씨를 거실로 데려와 함께 잠을 잤다.

하지만 A씨는 병원에서 뇌출혈,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 7개월 만에 숨졌다. A씨의 자녀들은 요양원 측이 A씨의 사고를 즉시 알리지 않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요양원을 상대로 1억3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가 낙상사고를 인지한 이후 망인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요양원 운영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미란 기자

지자체 4곳 채무위기 원인 '대형행사·개발사업'

인천·대구·부산·태백 채무비율 25% 초과해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옐로카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4곳의 채무 항목을 분석해보니 대형 행사나 개발사업 등이 지자체를 장기 채무 위기에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된 인천시의 채무 3조2129억원(1분기 기준) 가운데 최대 규모는 아시안게임 채무 1350억원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느라 진 빚은 1분기 기준으로 인천시 본청 전체 채무의 32.21%를 차지했다. 이는 인천시 일반회계 채무를 모두 합친 1조249억원보다 더 많다.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느라 발행한 지역개발 채권과 경제자유구역사업 채무도 각각 6594억원(20.52%)과 253억원(6.39%)으로 나타나 인천시를 재정위기로 몰고 갔다.

인천 도시철도 건설 채무도 1743억원(5.42%)이 아직 남은 상황이다.

대구와 부산도 도시철도를 건설하느라 외부에서 끌어 쓴 돈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었다.

대구시 채무 1조8461억원 중 도시철도 채무가 5898억원, 31.95%에 해당한다. 도로 건설 채무 4134억원(22.40%)과 대구스타디움 건설 채무 477억원(2.59%)이 뒤를 이었다.

부산시의 주요 채무도 지하철 9083억원(32.25%), 도로·교량 8125억원(28.85%), 상·하수도 1258억원(4.47%)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강원도 태백시는 다른 빚이 없이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 사업 보증채무 1157억원 1건만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됐다.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같은 재정지표가 일정 기준을 벗어나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는 단계다.

인천·대구·부산시와 강원 태백시는 1분기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분류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은 빗나간 수요예측이나 부실한 재정조달계획으로 추진한 대형사업 한두 건으로 재정상태가 악화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홍원 기자 hong@

'수원대 총장 비리 의혹' 엄정 수사 촉구

시민단체, 3차 고발장 제출

시민단체들이 수원대 총장 비리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단체들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고발한 지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총장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 진행해 구속 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교비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3~2014년 회계기간 동안 학교 측이 진행 중인 41건의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중 많은 금액이 교비회계에서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기부금 50억원을 사돈회사인 모 종합편성 방송에 투자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이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Great Son
Great Step

Korea



1936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우승 손기정 청동투구(보물 제904호)

[Re : Member]

2015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2015 SonKeeChung Peace Marathon

2015. 10. 25(일) 10 : 00

경기도 파주 임진각

풀코스 | 하프코스 | 10Km코스 | 6Km코스

접수 | 대회 문의 1666-1936

www.sonkeechungrun.com

■주최

손기정기념재단 SON KEE CHUNG MEMORIAL FOUNDATION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공식기념품

슈나이더
쉴드텍스 티셔츠
+
S-TRACK
모자



공식모델 : 안재현

TRAVEL WEAR Schneider 트레블 웨어 - 슈나이더

| 대회 참가자 접수중!

삼성전자株 110만원대 지켜낼까

야심작 공개 불구 하락 거듭하다 나흘 만에 ↑
하반기 전망도 '흐림'…"브랜드 전략 바꿔야"

삼성전자 주가가 야심차게 공개한 갤럭시노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연중 최저점을 찍는 등 시장의 차가운 반응에 고전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하락을 거듭한 끝에 이제는 110만원대 방어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45%(2만7000원) 오른 113만1000원에 장을 마치며 나흘 만에 반등했다. 개인이 466억2800만원 처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0억4000만원, 48억4200만원 어치 사들였다. 그동안의 주가 하락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 기대감에 지난 3월18일 종가기준 150만3000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왔다. 6월 들어 130만원 선을 반납한데 이어 최근에는 110만원 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4.55%가 빠졌고 시가총액도 지난달 말 174조원에서 18일 현재 166조원으로 8조원이 증발했다.

17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3.16%(3만6000원) 내린 110만4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플러스를 공개한 직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것.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갤럭시S 시리즈와 함께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전략 모델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 신제품 공개 시점을 전작보다 앞당기면서 시장의 호응을 기대했지만 주가 방어엔 실패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플러스를 공개하면서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상반기 갤럭시S6 부진에 하락한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플러스의 출고가격을 예상치보다 낮추면서 하반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갤럭시노트5의 32GB 모델 기준 출고가는 89만9000원대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 시리즈 출고가를 90만원 이하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갤럭시노트5가 기대만큼의 혁신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하준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아이폰 후속 모델이 10월 출시될 예정이어서 애플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출시했다"며 "현존 최고의 사양을 탑재한 두 제품 모두 전작과 비교해서 미세한 부분에서 진전이 있지만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5~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 연구원은 "2분기 중국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1위는 샤오미(15.8%), 2위는 화웨이(15.4%), 3위는 애플(12.2%)"이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4위가 삼성전자가 아닌 비보(8.1%)라는 점으로,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5~7%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열사인 삼성증권마저도 삼성전자에 냉정한 분석을 쏟아냈다.

조성은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브랜드 차별화 전략이 부족한 것이 중국과 인도 업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며 "6년째 접어든 갤럭시S 브랜드의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고 제언했다.

현대증권은 3분기 두 신제품의 총 출하량이 400만대로, 3분기 출하량 감소 예상치인 450만대를 보전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영주 현대증권 연구원은 "마케팅 비용의 증가와 갤럭시S6, 엣지 제품의 판가 인하 등을 감안하면 3분기 IM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2조7600억원에서 2조3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 9일째 매도에 1950선 후퇴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1950선으로 주저앉았다.

18일 코스피지수는 12.26포인트(0.62%) 내린 1956.26으로 마감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87억원, 213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았다. 특히 외국인은 9거래일째 매도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기관만이 홀로 818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했다. 비금속광물(-3.68%), 음식료품(-3.28%), 서비스업(-2.99%), 화학(-2.93%) 등이 하락했고 은행(2.12%), 전기전자(1.56%), 운송장비(1.46%) 등이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2.45% 오른 113만1000원에 마감,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상승은 최근 약세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 3인방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모두 2%대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1.68%)와 아모레퍼시픽(-4.86%), 삼성에스디에스(-1.13%), 제일모직(-2.75%)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18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닥도 2개월 만에 7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2.21포인트(3.08%) 내린 699.8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가 700선을 밑돈 것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6월3일(696.97) 이후 두 달여만이다.

개인은 1025억원의 주식을 사들였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1억원, 777억원 동반 매도에 나섰다.

업종별로는 정보기기(0.3%)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종이목재가 8%대로 급락한 가운데 출판 매체복제, 컴퓨터서비스, 화학, 방송서비스, 인터넷 등이 4~5%대로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이오테크닉스와 코오롱생명과학이 각각 0.49%, 3.73%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김민지 기자

타이어株, 실적 따라 주가 희비 엇갈려

| 마켓인사이트 |



한국타이어 본사.

금호타이어, 실적부진·노사갈등까지 '이중고'
넥센타이어, 북미 매출 증가로 하반기 호실적 전망

타이어주의 주가가 올해 2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는 약세를 보이거나 오르락내리락하는 반면 비교적 양호한 '막내' 넥센타이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국내 타이어업계 2위 '금호타이어'는 2분기 실적 부진에 노사갈등까지 겪으면서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8일 금호타이어 주가는 전날보다 1.38% 내린 64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7일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한 이후 이틀째 하락세다.

금호타이어의 올 2분기 매출액은 7845억원, 영업이익은 55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2%, 51% 감소했다. 게다가 같은 날 노조가 광주·곡성·평택 공장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악재가 겹쳤다.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호타이어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면서 "유럽과 신흥국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올 3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과 신흥국에서 신차 판매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 부과로 금호타이어가 얻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계 1위인 '한국타이어'도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분기 매출액 1조6199억원, 영업이익 201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 20% 하락한 실적을 기록했다. 주가는 최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타이어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한국, 유럽, 중국에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서 "특히 중국시장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하반기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원화 약세는 긍정적이지만 중국과 한국시장의 경쟁심화 영향으로 평균 판매단가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계의 막내 격인 '넥센타이어'는 2분기 호실적을 올렸다.

넥센타이어는 2분기 매출액 4671억원, 영업이익 55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8%, 14% 성장했다.

이명훈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넥센타이어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시장 평균 추정치(컨센서스)를 상회했다"며 "미국 매출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효과로 급증해 유럽을 비롯한 기타 시장 부진을 만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넥센타이어의 주가도 날개를 달았다. 이날 넥센타이어의 주가는 전일대비 2.89% 오른 1만42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3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명훈 HMC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미국 시장 매출 비중이 커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인한 수혜가 가장 크다"면서 "다만 현 주가 수준에서는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지 기자 minji@

"은행, 입맛대로 고른다" 계좌이동 전쟁 임박

금융권 지각변동①

인터넷전문銀 앞다툰 참여로 '합종연횡' 불가피
주거래고객 유치 마케팅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금융권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올 하반기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는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인터넷전문은행 출현까지 전통 금융산업을 뒤흔들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등 온라인뱅킹이 확산됨에 따라 종이통장은 자취를 감췄고 실물 카드와 현금을 대체할 각종 페이와 와치도 등장하고 있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생존 경쟁이 막을 올린 셈이다.

최근 시중은행은 ICT기업과의 융복합과 증권, 보험업과의 복합점포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은행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진 데 따른 방안이다. 올 2분기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5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금리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가 줄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은행에서는 사업다변화를 통해 수익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다.

최근 KB국민은행은 다음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이뤄진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 공식 합류했다. 내달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짝짓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목표로 새로운 모바일 은행 모델을 설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KT, 교보생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와 SK텔레콤도 웰컴저축은행 등과 함께 인터넷은행 인가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권 간의 합종연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내 1~2개 사업자에만 예비인가가 허용되기 때문에 당장 은행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은산분리 규제완화 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증가할 전망"이라며 "기존 은행에게는 분명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본격화로 결국 기존 은행들의 인원과 점포 등 비용효율화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거래 고객 유치 마케팅 역시 활발하다.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주거래고객에 대한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높이고 금융 계열사간 시너지를 확대해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계좌로 편하게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집토끼(기존 고객)를 지키는 동시에 산토끼(신규고객)도 빼앗아야하는 두가지 임무가 떨어진 셈이다. 특히 은행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저원가성예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는 점으로 비쳐볼때 계좌이동에 따른 주거래예금고객 확보는 은행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실제 최근 은행들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주거래 고객 특화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저비용예금의 지각변동과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주거래 고객을 위한 상품과 거래 은행을 옮기려는 신규 고객을 위한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한화투자증권, 임직원 자기매매 통제제도 강화

매매 사전승인·최소 의무보유기간·실적 불인정 제도 도입

한화투자증권이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7일부터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매 사전승인', '최소 의무보유기간(15일)', '실적 불인정' 등 세가지 제도를 추가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매매 사전승인'은 자기매매를 하려는 임직원은 주문을 내기 전에 먼저 컴플라이언스(준법)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자기매매 계획이 신고되면 고객의 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갖고 선행매매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하고,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없는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게 된다.

'최소 의무보유기간'은 임직원이 주식을 매수한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가리키며, 15일 간으로 설정됐다. 지나치게 빈번한 임직원 자기매매가 고객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실적 불인정'이란 임직원 본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업무성과를 평가할 때 해당 임직원의 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매매 유인을 제거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고객계좌 관리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이 같은 세가지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가 선진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윤리강령 제정 이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월 회전율 100%와 주문건수 10회를 넘는 임직원 매매 주문에 대해서는 아예 접수조차 안 되도록 전산시스템상 차단막이 설치돼 있다.

준법감시인 이재만 상무는 "한화투자증권 임직원들 스스로가 자기매매 제한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선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6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편집국을 설립했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리서치 보고서 등 자료를 일반 고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초대 편집국장에는 전 이주명 아시아경제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김민지 기자 minji@



하나금융 임원, 탈북청년 멘토링 하나금융그룹 임원들이 탈북 청년의 조언자로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복 70주년과 통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룹 임원들이 직접 멘토가 돼 북한 출신 청년의 고민을 나누고 정착을 지원한다. /하나금융 제공

"소상공인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할 것"

NH농협,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행

NH농협은행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달 1일부터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노란은행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출시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복리식 퇴직금 제도다.

가입자에게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납입금액 중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연복리가 적용되고 가입 시부터 2년간 월납입금의 150배까지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된다. 특히 납입금액은 법에 의해 압류를 할 수 없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 소외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아란 기자



김주하 NH농협은행장(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8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우리은행, 은퇴설계 브랜드 '웰리치 100' 선봬

우리은행은 새로운 은퇴설계 브랜드 '웰리치(We'll Rich) 100'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건강(Well-being)하고 풍요로운(Rich) 노후생활을 100세까지 지 영위하자'는 의미로 앞으로 우리은행 은퇴관련 모든 상품과 서비스 브랜드로 사용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은퇴 관련 통장과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신탁 및 카드로 구성된 '웰리치100 패키지'도 내놨다. 패키지는 은퇴 이전에는 자산증식형, 은퇴 이후에는 현금창출형으로 2원화시켜 단계별로 필요한 상품을 한 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연금펀드를 활용한 모델포트폴리오(MP·Model Portfolio)를 제공해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 가능하다. 영업점 요청시 자산관리 전문가와의 1:1 대면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자산관리전략은 물론 세무,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백아란 기자

中 위안화 평가절하… 해외수주 '빨간불'

가격경쟁 밀려 중동수주↓ 기술격차도 갈수록 줄어 "기술 우위분야 지원 필요"

중국건설사가 최근 해외 건설 수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평가를 절하하면서 우리업체보다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에 국내업체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달러·위안화 기준환율을 4.66%까지 낮췄다. 위안화가 평가절하(달러 대비 가치 하락)되면 중국 건설사들은 그만큼 해외수주 경쟁력이 향상된다.

십여년간 중국 건설사들은 해외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했다.

미국 건설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별 해외건설시장 매출액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3년 7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세계 점유율 14.5%로 스페인(14.7%)에 이어 2위다. 이 기간 우리나라는 7.8%(424억 달러)에 그쳐 6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 2002년 해외매출 점유율 6.1%(7위)에서 11년 만에 점유율을 8.4%가량 끌어올린 반면 우리나라는 5% 올리는데 그쳤다.

최근에도 중국의 해외수주 증가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해외건설협회(이하 해건협)가 지난 6월 발표한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9년 해외에서 759억 달러를 수주한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9.3%의 신장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수주액도 56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29.6%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국내건설사의 연평균 해외수주액 상승률은 6.8%에 그쳤다. 올해는 18일 현재 307조659만 달러의 수주고를 보이며 지난해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주요지역별 순위에서도 우리나라 업체는 중국에 고전하고 있다.

2013년 ENR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중동 외 지역에서 중국보다 점유율이 낮았다.

이 기간 중국은 아시아(17.3%), 아프리카(48.7%)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중남미에서는 10.5%의 점유율을 기록해 4위를 차지했다.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3.7%를 차지하며 7위에 그쳤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아프리카에 440억 달러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한 후 최근 10년 사이 이 지역에서 수주액이 270배 증가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높은 중동지역도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25.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전년보다는 3.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국(16.4%)은 2012년보다 6.2%포인트 상승하며 2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중동 발주가 줄면서 우리나라의 수주액도 감소하고 있다. 18일 현재 우리나라의 중동 건설 수주액은 101억82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도 막강한 자금력과 값싼 인건비를 활용해 중국 건설사들이 해외 입찰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까지 하락하면 중국과 경쟁하기가 힘겨울 것"이라며 "막강한 자금력과 위안화 절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까지 더해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설곳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신삼섭 해건협 실장은 "최근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업체의 가격경쟁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기술경쟁력 면에서도 중국업체와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유플랜트, 가스처리, 해양플랜트 등 현재 우리가 기술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밖에도 진출지역 다변화와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활용한 금융지원, 수주지원 외교활동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가구 모서리 둥글게… 어린이 특화설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호' 욕실엔 미끄럼 방지 타일 감성 자극 '컬러벽지' 도입


'힐스테이트 금호'에 설계된 둥근모서리 가구(좌). 둥근 모서리 문선.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은 오는 9월 금호동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금호'를 어린이 특화 아파트로 설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구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다. 자녀들 방에 제공되는 붙박이장과 욕실, 안방 문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다. 욕실에는 미끄럼방지 타일을 적용한다.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과 감성 자극에 도움을 주는 컬러벽지(컬러테라피)를 도입한다. 단지 내에는 유아·어린이 테마놀이터도 조성된다.

분양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특화 설계를 도입했다"며 "이미 조합원 분양 당시부터 호응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 20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5개동, 총 606가구(전용 59~141㎡)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분은 73가구(전용 84~141㎡)다. 견본주택은 힐스테이트 갤러리 내(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14-1)에 마련된다. /김형석 기자

테라스·발코니 특화… 계약금 정액제 혜택

모아주택산업 세종시 3차 모아엘가 더테라스 21일 견본주택 오픈 분양 돌입


'세종시 3차 모아엘가 더테라스' 투시도. /모아주택산업 제공

모아주택산업은 오는 21일 '세종시 3차 모아엘가 더테라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 3-2생활권 L3블록 일대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0~18층, 12개동, 총 49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B 152가구 ▲91㎡A·B 12가구 ▲99㎡A·B 3가구 ▲101㎡A·B·C 210가구 ▲108㎡A·B·C 18가구 ▲110㎡A·B 72가구 ▲117㎡A·B 16가구 ▲118㎡A·B 8가구 ▲126㎡A 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전가구는 4베이(Bay)·4룸(Room), 팬트리 등을 갖춘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1층은 천정 높이를 2.4m로 시공한다. 전면과 측벽의 테라스 특화, 저층특화발코니 등 층과 면적에 따라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주차장은 전부 지하화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용 주차면과 가구당 1.5대 규모의 바이크스테이션(자전거 보관소)을 설치했다. 커뮤니티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과 키즈룸 등이 조성된다.

3.3㎡당 분양가는 800만원 중후반대다. 중도금 60% 무이자와 계약금 정액제(1차분)혜택이 제공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5일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일반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을 각각 접수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9월 3일이며, 계약은 8~10일이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17년 11월이다.

분양관계자는 "최근 관심도가 높은 테라스하우스 등 신평면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청약에서도 높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삼부토건, 4년 만에 법정관리 재신청

르네상스호텔 매각 실패

시공능력평가 42위인 삼부토건이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011년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4년 만이다.

삼부토건은 지난 17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조만간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삼부토건에 자율재무구조개선협약(이하 자율협약) 연장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당초 자율협약 만료일은 지난 6월까지였다. 부동산개발회사(디벨로퍼) MDM과의 르네상스호텔 매각 협상으로 이달 초까지 만기가 연기됐다. 하지만 호텔 매각은 무산됐다.

현재 삼부토건이 연체한 대출원리금은 총 9443억원 규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부토건은 지난 2011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대주단이 르네상스 호텔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했다"며 "호텔 매각 실패로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내달 '천안 마치 에비뉴' 2차 분양

알토란, 점포 95실 공급


'천안 마치 에비뉴' 조감도. /알토란 제공

상가 전문 시행사인 알토란은 오는 9월에 '천안 마치 에비뉴' 2차 분양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가는 총 3만1000㎡ 면적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 수는 총 95실이다. 상가에는 1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추가로 단지 내에 7283.3㎡에도 주차장을 확보했다. 배후수요로는 반경 2㎞내 주거수요 15만명과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 5만명이 있다.

단지 설계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삼성동 코엑스, 상암 월드컵경기장 등 다수의 랜드마크 건물을 설계한 '정림건축'이 맡았다.

상가 외관은 경관조명과 대형조형물, 옥상공원, 1층 광장 조경 등이 조성된다. 아이들을 위한 전동차와 짚라인, 체험놀이터, 캠핑장 등을 구성해 가족과 연인을 위한 놀거리도 제공한다. 특히 에어로빅, 비보이, 캐리커쳐, 삐에로, 포토존 등 365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이 상가가 완공될 즈음에는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홍보관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057에 마련됐다. /김형석 기자

삼성 패블릿, 中 제치고 美 넘어야 승산

갤노트5·S6엣지 플러스로 시장 선점 승부수
애플 '충성도'·샤오미 '가성비' 경쟁 관건

삼성전자가 패블릿(5인치 이상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을 잡기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플러스 두 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치열할 시장 경쟁을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플의 아이폰6S플러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 중국의 샤오미와 화웨이도 패블릿 신제품을 선보이며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갤럭시노트5·갤럭시S6엣지플러스는 20일 국내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패블릿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두 제품에 담았다. 갤럭시노트5는 기존 출시 사이클을 한 달여 가량 앞당겼고, 갤럭시S6엣지플러스까지 가세하며 판매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업계 한쪽에서는 두 제품이 서로의 시장 수요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삼성전자는 S펜, 듀얼엣지 디스플레이 등 각각의 특장점이 달라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갤럭시S6엣지플러스(왼쪽)와 갤럭시노트5. /삼성전자 제공

스마트폰 시장에서 패블릿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화면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늘면서다.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패블릿 판매량은 1억6600만대로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4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2%)보다 15%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GfK는 올해말에 패블릿 비중이 6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가 패블릿 시장에 정성을 쏟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일부 사양의 업그레이드가 예상되는 아이폰6S플러스의 시장 반응이 삼성전자 패블릿 신제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기선제압을 위해 갤럭시노트5·갤럭시S6 엣지플러스가 조기 등판했으나 본 게임은 아이폰6S플러스 출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삼성전자로서는 중국업체의 패블릿도 위협요소다. 샤오미와 화웨이의 신제품은 갤럭시노트5(5.7인치 QHD)·갤럭시S6 엣지플러스(5.7인치 QHD)에 비해 하드웨어 사양은 떨어지지만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비)가 최대 무기다.

샤오미는 최근 5.5인치 풀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홍미노트2를 선보였다. 판매가격이 10만원대로 책정된 이 제품은 16일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자 반나절 만에 초도물량 80만대가 동났다. 화웨이는 다음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5.7인치 풀HD 화면을 장착한 메이트 7S를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패블릿 신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의 고객 충성도, 샤오미·화웨이의 가성비와 경쟁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전자, 상반기 유럽서 고전… 하반기도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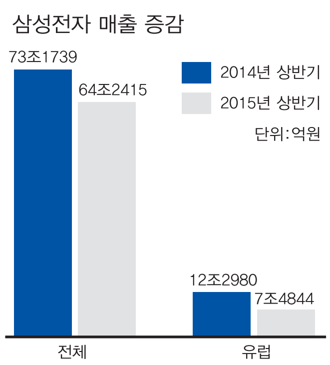
유로화 약세 매출 39.14%↓
PC·TV 교체수요 적을 듯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지역별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유럽 지역의 매출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삼성전자의 주요 지역별 매출현황(별도기준)에서 지역별 매출 합계는 64조24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73조1739억원)보다 12.21% 감소한 것이다.

올 상반기 유럽 지역의 매출은 7조4844억원(11.65%)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9.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유럽 지역 내 매출의 하락 원인은 유럽 환율의 약세와 관련이 있다. 유로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이는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유럽 지역의 매출은 3조85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39% 감소한 바 있다.

유로화 약세는 2분기에도 지속됐고 이는 상반기 유럽 지역 내 매출 실적에 반영됐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 신모델이 투입됐는 데도 불구하고 예상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며 실제적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은 전분기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상황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박 연구원은 "유럽과 미국의 신학기가 9월에 시작되고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소비 수요가 있다"면서도 "제품 사이클상 PC나 TV의 교체 수요가 많이 없고 스마트폰의 경우 고가폰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유럽 지역 내 매출에 대해서 "유로화가 안정을 찾고 그리스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에 개선되겠지만 큰 폭의 성장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삼성전자, 카드사와 '삼성페이' 서비스 맞손 삼성전자는 전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10개 카드사들과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업무제휴 협약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페이'는 국내에서 20일 정식 출시된다. 앞줄 왼쪽부터 김호진 삼성전자 상무, 이명규 삼성카드 부장, 송종근 하나카드 상무, 김종극 롯데카드 상무, 김정수 신한카드 본부장, 김종윤 현대카드 이사, 박운목 NH농협카드 단장, 박재현 삼성전자 상무, 뒷줄 왼쪽부터 정성호 KB국민카드 상무, 최정훈 BC카드 상무, 강치구 우리카드 부장, 김민권 씨티은행 부장. /삼성전자 제공

LG, 46년간 석·박사 2953명 육성

올 연암장학생 증서 수여
51명 선발 총 7억원 지원

LG가 석·박사 우수 인재들의 학업 후원을 46년째 지속하고 있다.

LG연암문화재단(이사장 구본무)은 18일 여의도 LG트윈타워서 '2015 연암장학생 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업성적이 뛰어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을 후원하는 '연암장학생 지원사업'은 인재가 곧 국가의 미래라는 인식 하에 1970년부터 시작된 LG의 최장수 사회공헌활동이다.

특히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이공계와 인문계를 고루 선발하고 있다. 올해는 각 대학총장의 추천을 통해 이공계 30명, 인문계 21명 등 51명의 장학생들을 선발하여 3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과 교재대 등 총 7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국내외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해당 연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인재들이 주를 이뤘다.

이날 증서수여식에서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은 대학원생들에게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목표에 매진하여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LG연암문화재단은 올해까지 46년간 총 2953명의 대학원생들에게 약 138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후원을 받은 장학생들은 국내외 유수의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급 학술지에 연구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톤 플러스'
음향전문업체 JBL 제휴
프리미엄 사운드 구현

LG전자는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 플러스(TONE+, HBS-810)' 신제품을 이달 말 미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음향기기 전문업체인 JBL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뛰어난 음질을 제공했던 '톤 플러스(HBS-800)'의 후속제품이다. LG전자는 JBL과 협업을 이어가면서 이번 신제품에 독자 기술인 '쿼드 레이어 진동판'을 적용해 더욱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 사운드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홍보모델이 '톤 플러스'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4개 층으로 이뤄진 쿼드 레이어 진동판은 단층 구조 진동판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풍성한 저음과 명료한 고음을 동시에 표현한다.

LG전자는 다음달 4일(현지시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5'에 톤 플러스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한진 기자

실적 악화·노조 파업… 금호타이어 '몸살'

상반기 영업익 절반 뚝 넥센타이어에 추월 당해

수입 타이어 경쟁 가속 국내업체 정체 지속될듯

2015년 단체교섭 일괄타결을 위한 회사측 최종안 변경 내용

구분	기존안	최종안
임금 인상(일당)	정액 970원	정액 1900원
일시금	없음	300만원(임금피크제 도입 전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연동 만 60세 연장	임금피크제 연동 만 61세 연장

금호타이어가 상반기 저조한 영업실적을 거둔 데 이어 노동조합의 전면파업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올해 2분기 매출 7845억원, 영업이익 552억원, 당기순이익 161억원의 실적을 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2.39%, 영업이익은 51.19%, 당기순이익은 69.33% 급감한 규모다.

금호타이어의 올 상반기 실적은 매출 1조5388억원, 영업이익 992억원, 당기순이익 224억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29%, 영업이익은 50.02%, 당기순이익은 73.70% 줄어든 수치다.

반면 넥센타이어는 2분기 매출 4671억원, 영업이익 556억원, 당기순이익 42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7.87%, 영업이익은 14.16%, 당기순이익은 19.27% 늘어난 규모다.

넥센타이어는 상반기 매출 9110억원, 영업이익 1069억원, 당기순이익 649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3%, 4.29%, 5.70% 불어난 수치다.

양사가 지난해와 비교해 판이한 실적을 내면서 넥센타이어는 올 2분기와 상반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금호타이어를 앞질렀다.

넥센타이어는 한국타이어를 포함한 국내 타이어 3사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개선된 실적을 올렸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상반기 매출 3조1063억원, 영업이익 4041억원, 당기순이익 31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8%, 20.98%, 10.73% 줄어든 규모지만 금호타이어보다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이처럼 갈 길이 바쁜 금호타이어지만 현재 노조의 전면파업이란 제동까지 걸린 실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전날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시금 지급 등의 핵심쟁점을 두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하루에 약 52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졸업 이후 첫 전면파업의 장기화 조짐이 우려되는 가운데 3분기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김평모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으로 넥센타이어와 같은 저가 타이어·글로벌 경쟁사들이 수혜를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의 북미 판매량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경쟁강도가 더욱 거세짐에 따라 해당 지역 내 판매량 역시 정체 추세다. 올해 실적 추정치는 하향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의 경쟁이 중저가 타이어에까지 이어지며 품질 대비 우수한 가격 메리트가 감소한 국내 타이어 업체들에 쉽지 않은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렉서스 2016 올 뉴 ES 공개… 내달 1일 출시



렉서스가 9월 1일 출시를 앞둔 '2016 올 뉴 ES' 모델(사진)을 18일 공개했다.

렉서스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렉서스 전시장에서 방문 고객에게 2016 올 뉴 ES 내외관을 공개한다.

렉서스는 강렬한 외관 디자인과 고급스러워진 인테리어로 변신한 ES 라인업에 대한 고객 문의가 많아 적극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이 있는 고객은 누구나 렉서스 전시장을 방문해 2016 올 뉴 ES를 볼 수 있다.

출시를 앞둔 2016 올 뉴 ES는 렉서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2016 올 뉴 ES300h'와 3500cc V6 가솔린 엔진의 '2016 올 뉴 ES350' 등 2종이다.

/이정필 기자

폭스바겐 골프·제타 '美 안전 최고등급' 획득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자동차 안전도 테스트 결과 최고 수준인 TSP+(TOP SAFETY PICK+RATING) 등급을 획득했다.

18일 사측에 따르면 7세대 신형 골프와 제타는 차량 충돌 시 탑승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5개의 테스트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컴팩트카 부문 TSP+ 등급에 선정됐다.

국내 시판 중인 제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lectronic Stability Control)를 기본 제공한다.

골프는 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을 포함해 1차 추돌을 감지하면 제동을 걸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여주는 다중 충돌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Multi Collision Brake System)과 피로 경보 시스템 (Rest Assist), 전 후방 주차보조장치(Park Pilot) 등 차세대 능동형 안전장치를 기본 제공한다.

/이정필 기자

현대차그룹, 이병호·김견·담도굉 부사장 인사 단행

현대자동차그룹은 18일 ▲사천현대기차 담도굉 판매담당 부사장을 중국전략담당으로 ▲현대위아 공작·기계·차량부품사업 담당 이병호 부사장을 북경현대기차 총경리로 ▲기아자동차 기획실장 김견 부사장을 동풍열달기아 총경리로 임명했다.

▲기존 현대자동차 중국전략담당을 맡았던 최성기 사장은 고문으로 ▲동풍열달기아 총경리를 맡았던 소남영 부사장은 자문으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중국사업 부문 전반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현대차그룹, 1만500명 채용… 구직자 이목 집중

계열사 채용절차 관심↑ 창의·경험위주 '열린 채용'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500명을 채용한다.

현대차그룹의 1차 협력사도 1만7000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해 청년 고용난에 다소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9500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그룹 차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연간 100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현대차그룹의 채용은 1만500명까지 확대돼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구직자 사이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기아차의 채용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평균연봉이 국내 최고 수준인 1억원에 육박할 정도여서 구직자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직장으로 꼽힌다.

현대·기아차는 2000년 그룹 출범 후 대졸 신입사원 1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학점, 영어성적, 전공에 대한 제한을 모두 없앴다.

그 대신 본인의 관심분야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남다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3년 상반기 채용부터 서류접수 때 사진 등 8개 항목 삭제에 이어 하반기에는 입사지원서의 항목 6개를 추가로 삭제·간소화했다.

2013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부터는 그룹에서 개발한 신규 인적성검사(HMAT)를 실시했다.

HMAT에는 역사와 관련한 에세이를 쓰는 문제를 내 입사에 도전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통찰력을 강조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4년째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열고 있다.

올해도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창원, 광주, 울산, 대구 등 총 5개 지역에서 '2015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총 2만5000여명의 구직자가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기 기자 yonggi@

한국지엠

임금교섭 조인식 노사교섭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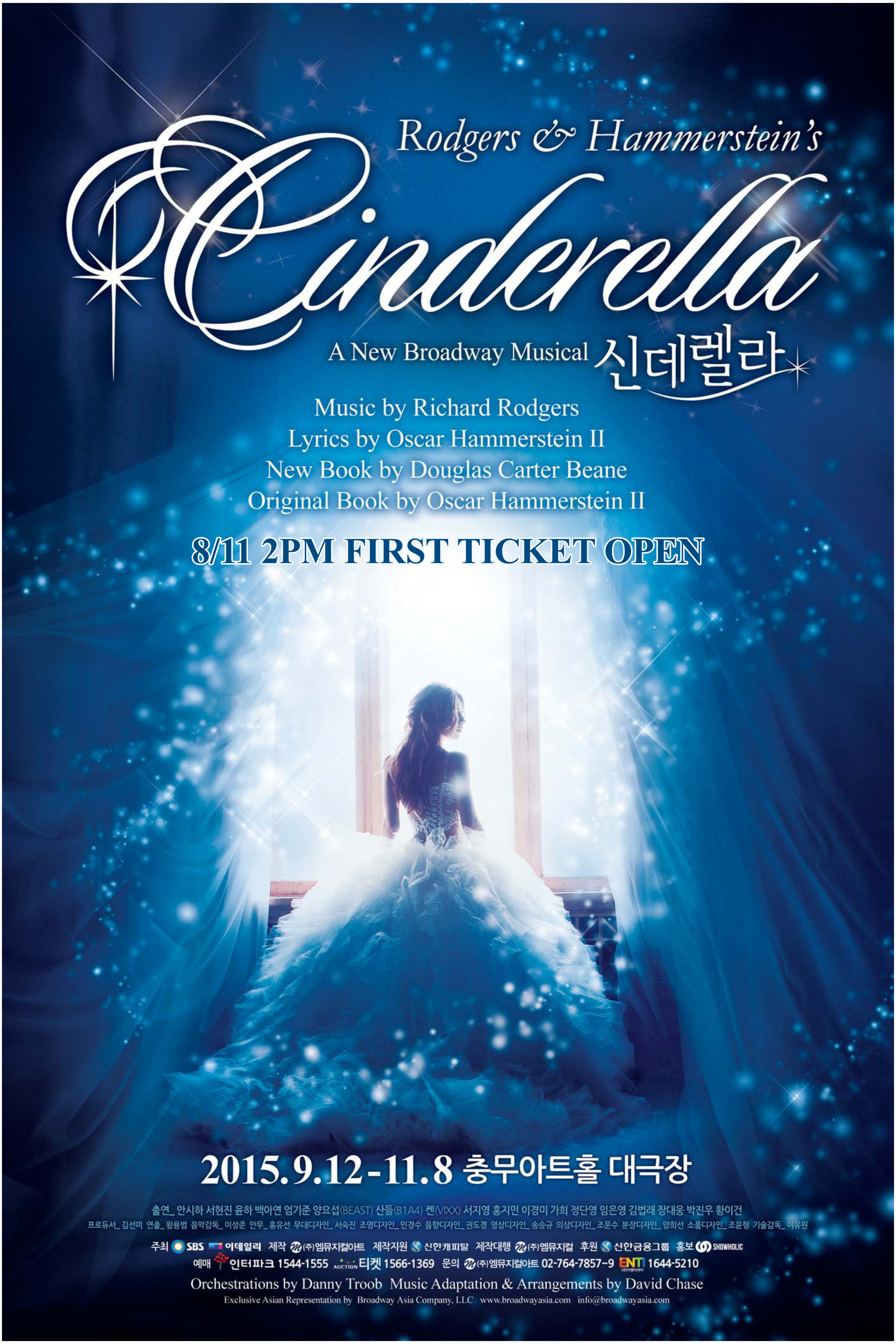
18일 부평 본사에서 열린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맨 앞줄 가운데), 정종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장(사장 오른쪽), 강두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지부장 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모여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18일 부평 본사에서 201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열고 올해 노사교섭을 마쳤다.

이날 조인식에는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과 강두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정종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여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지엠 노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했다.

사측은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안으로 노사 간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쉐보레의 더 넥스트 스파크는 물론, 쉐보레의 플래그십 모델인 대형세단 임팔라와 사전계약 중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랙스 디젤 등 신차들을 앞세워 내수 판매에 더욱 집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8/11 2PM FIRST TICKET OPEN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창조경제 분야 더 큰 활성화 방안 만들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후 첫 현장 경영
대전·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찾아 성과 점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 이후 대전과 세종시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현장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는 18일 최 회장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시설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대전·세종 창조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개소때 '창조경제의 성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SK가 갖고 있는 전 역량을 다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바 있다.

이날 오전 대전센터를 찾은 최 회장은 입주 벤처기업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인사한 뒤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최 회장은 업체대표들과 도시락 오찬을 하며 90여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 회장은 먼저 "SK그룹과의 윈-윈 모델을 구축하면서 창조경제 생태계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입주 업체 대표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업체 대표들의 발언을 경청한 최 회장은 "벤처기업의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생태계 조성은 어느 한쪽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서로 목표가 같아진다"며 "실리콘 밸리는 우리보다 좋은 생태계를 갖고 있어 우리 상황과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봐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후에 세종센터를 찾아 창조마을 시범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세종센터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창조마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전시켜 농촌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이 18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벤처 기업 테그웨이의 이경수 대표로 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SK그룹 제공

최 회장은 세종센터 관계자들에게 "농업이 첨단산업을 만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농촌형 창조경제' 현장"이라면서 "이런 모델이 전국과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구현해 나가자"고 했다.

SK는 최회장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대전과 세종에서 진행되는 '쌍끌이 창조경제'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룹이 보유한 특허 기술 공유를 확대하고, 에너지·화학·반도체 기술을 벤처기업의 사업화 모델에 이식하는 활동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최 회장은 또 '고용 디딤돌'과 '청년 비상' 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대전·세종센터와 연계해 창조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만우 SK그룹 PR팀장(부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방문은 SK그룹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제주항공, 부산 경전철 옥외광고 제주항공(대표이사 최규남)은 이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역에서 부산~오사카, 부산~후쿠오카 등 부산발 국제선 홍보활동을 펼친다. 제주항공은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역 개찰구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게이트처럼 꾸며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경전철 탑승객을 대상으로 부산발 국제선 정기노선을 홍보하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삼성SDS, 파트너사에 사업 노하우 전수

개발방법론 오픈 협약식

삼성SDS는 18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삼성SDS타워에서 8개 파트너사와 품질 향상을 위한 개발방법론 오픈 협약식을 개최했다.

삼성SDS 개발방법론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사업방법과 절차를 체계화·표준화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SDS 상생협력실장, 품질보증팀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8개 파트너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삼성SDS가 파트너사와 수평적 관계로 성장하고 소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삼성SDS는 품질의 우수성, 삼성SDS와의 협력관계 등의 엄격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방법론을 공유할 파트너사를 선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삼성SDS 개발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 파트너사는 총 26개사다.



18일 윤상우 삼성SDS 전무(사진 중앙)와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서울 잠실 삼성SDS타워에서 파트너사 지원을 위한 개발방법론 오픈 협약식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SDS 제공

삼성SDS 방법론을 활용 중인 최기환·권영민 펜타크리드 대표는 "삼성SDS의 상생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삼성SDS의 개발방법론 공유였다"며 "이를 통해 연 매출이 30억원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SDS는 파트너사들의 활용 빈도가 높은 프로젝트 관리를 비롯한 5개 방법론을 선정해 프로젝트 관리 및 개발 구분에 따른 어플리케이션구축 방법론의 절차와 템플릿을 제공한다.

윤상우 삼성SDS 전무는 "말뿐인 상생이 아닌 파트너사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 정책을 통해 파트너사의 사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는 물론, 글로벌 동반 성장까지 이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KT-BC카드, 전자 지갑 '클립' 출시

카드 2500종 할인정보 담아

KT와 BC카드가 카드 할인 정보와 멤버십, 쿠폰을 엮어 이용자가 챙길 수 있는 최대 할인 혜택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 '클립(CLiP)'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KT와 BC카드는 18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개념 모바일 지갑 서비스 '클립'을 공개했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 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모바일 지갑 이용자들은 할인율이 큰 신용카드 할인정보를 따로 기억해야 했다. 카드 할인을 받으면서 멤버십이나 쿠폰 등 보조 할인 금액을 비교하는 등 사용의 불편함을 없애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KT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용·체크카드 2500종의 할인 정보를 클립에 담았다. 그리고 전국 11만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카드 혜택을 '자동 알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클립은 이용자의 주변 장소에서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결제 카드를 추천해 준다.

이에 더해 보유하고 있는 멤버십 할인과 쿠폰을 통합해 가맹점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할인율과 이용자 별 보유 카드·멤버십·쿠폰을 사용했을 때의 개인 할인율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

KT는 오는 10월 중 BC카드와 클립에 직접 결제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적용되면 할인 정보를 확인한 뒤 모바일로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SKT-부산교통공사, LTE기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SK텔레콤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무선설비 구매·설치' 사업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LTE 기반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사업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것으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SK텔레콤은 내년 11월 말까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41km 구간 전체에 LTE-R을 구축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번사업을 통해 기존 30여 년간 사용하였던 노후화된 초단파(VHF) 기반 통신망을 LTE망으로 교체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LTE-R 구축사업을 통해 관제사와 기관사, 역무원, 유지보수원 등 상호간 개별·그룹·긴급통화가 가능토록 한다. 재난상황 발생시 경찰서·소방서 등 재난관련 기관에 즉시 알림이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LTE 통신 방식의 특성을 활용해 ▲ 열차 안전운행 네비게이션, ▲ 열차 내 영상 전송, ▲ 영상통화 앱 등 데이터 중심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축 등 통해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조문회동’ CJ-삼성 화해할까

고 이맹희 명예회장 빈소 삼성가 인사 잇단 조문

장지, 삼성가 선영과 달라 실질적 화해, 시일 걸릴 듯



범 삼성가 인사들은 공식 조문이 시작된 18일 전날 저녁 일찌감치 빈소를 찾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어머니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연합뉴스

병환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대신한 이재용 부회장의 조문에 이어 삼성 사장단이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그동안 소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삼성과 CJ 가문이 이번 조문을 계기로 극적인 화해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맹희 CJ 명예회장이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다른 곳에 안장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화해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CJ그룹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마련하고 18일 오전부터 공식 조문을 시작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14일 중국에서 폐암 등 지병으로 향년 84세 나이로 타계했다.

범삼성가 인사들은 공식 조문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저녁부터 일찌감치 빈소를 찾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밤 9시쯤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약 15분 정도 식장에 머물렀다. 고 이명예회장의 차남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배웅을 받으며 장례식장을 나왔다.

이에 앞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어머니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함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 명예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과 정재은 명예회장, 그의 장남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딸인 정유경 부사장 등 신세계그룹 일가도 빈소를 찾았다.

또 이날 오전에는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삼성물산 대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 윤주화 제일모직 대표,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 등 삼성 주요 사장단 6명이 고 이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으면서 양 그룹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이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다른 곳에 안장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그룹의 실질적인 화해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것이 재계의 관측이다.

CJ그룹에 따르면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지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집안 소유의 대지에 묘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이 명예회장은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큰 아들이자 삼성가의 장남이지만 선영에 안장되지는 못한다. 이병철 선대 회장의 묘지는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안에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삼성가의 선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CJ가 삼성가와 별도의 그룹인 만큼 별도로 조성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삼성과 CJ 간 갈등이 이번 회동으로 화해의 분위기는 조성됐을지 모르지만 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만큼 시일이 걸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고 이맹희 CJ명예회장의 빈소에는 정재계, 문화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최근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안병덕 코오롱 대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구자학 아워홈 회장, 박병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배우 이정재와 가수 이승철 등이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명예회장의 장례는 20일까지다. 장례식은 이채욱 CJ 대표를 장례위원장으로 하는 CJ그룹장으로 치러지며 상주는 차남 이재환 대표와 장손 이선호씨가 맡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명예회장의 장남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대법원이 임시로 주거지를 옮길 수 있도록 해 장례식장을 찾을 수 있게 됐지만 신장 이식 수술 이후 감염억제제를 투여하고 있어 감염 문제로 빈소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CJ그룹 측은 전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남·북, 개성공단 임금 5% 인상 합의

월 70.35 달러→73.87 달러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지난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 달러에서 73.87 달러로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길 기자

신동주 "이사진 교체 위한 주총소집 고려"

日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신동주(61·사진)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18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사진 교체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형제가 사이좋게 일본은 내가, 한국은 동생이 담당하라고 아버지는 계속 얘기해 왔다"며 "더욱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일본·한국 양쪽의 사업을 총괄하라는 발언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현 경영진을 추인하는 것은 기업통치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자신과 자신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신격호 총괄회장은 전날 주총에서 회사 측(신동빈 측)이 제안한 의안 2건에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주주로서 권리를 지니고 있다"며 "단기적인 매출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인지 중장기적으로 상품의 가치나 사원을 소중히 하는 경영인지, 어느 쪽이 좋은지 판단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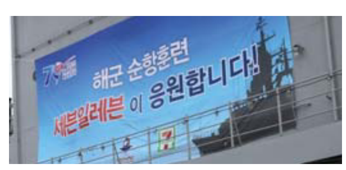


'신학기 문구용품 대전'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개학 시즌을 맞아 9월2일까지 '신학기 용품 대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약 600여종의 문구 행사 사품을 전국 140개 매장에서 할인 판매하는 행사다. 행사기간 중 문구류 1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홈플러스 제공

세븐일레븐 '2015 해군순항 훈련' 후원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2015 해군순항 훈련'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후원물품은 생수·과자·라면 등으로 구성된 약 1200박스 2만2000여 개의 식료품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승인 대표와 김종삼 해군순항훈련전단장이 참석했다. /김성현 기자



롯데마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개시 18일 서울시 마포구의 단체급식전문업체에서 직원들이 추석 선물세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내달 13일까지 전 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제공

공영홈쇼핑, KB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공영홈쇼핑(대표 이영필 채널명 아임쇼핑)은 KB국민카드와 손잡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화 주문시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푸시 메시지만으로 결제앱의 구동과 카드결제가 이뤄진다.

홈쇼핑 주문시 상담원에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결제를 위한 정보를 불러주거나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 /박상길기자

SPC, 가맹점주 자녀에 장학금 지원

'행복한 장학금' 전달식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서 '제 7회 SPC 가맹점주 자녀 행복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SPC 가맹점주 자녀 행복한 장학금'은 파리바게뜨·파스쿠찌·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빚은 등 SPC그룹 계열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주의 대학생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매 학기 선발해 장학금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은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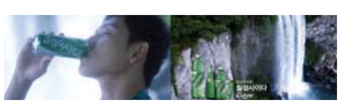
한국콜마, 재도약 위한 대대적 인사



한국콜마(대표 윤동한)는 화장품부문 마케팅본부에 전영홍(56·**사진 왼쪽**) 부사장을, 생산본부에 허용철(63·**사진 가운데**)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콜마는 홍보총괄로 김봉조(46·**사진 오른쪽**) 이사를 선임했다. 김봉조 홍보이사는 20년간 불교방송국 기자로 재직했으며 경기도청 홍보총괄을 담당했다. /정은미 기자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광고 선봬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영화배우 겸 가수 임시완을 모델로 한 칠성사이다 신규 광고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칠성사이다의 브랜드 핵심 가치인 '맑고 깨끗함'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광고 역시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지켜가는 폭포를 소재로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담았다. /정은미 기자

성장단계별 '2080 키즈 치약&칫솔' 출시



생활뷰티기업 애경(대표 고광현)의 토털 오럴케어 브랜드 2080가 어린이의 건강한 구강관리와 올바른 양치를 위한 '2080 키즈 치약&칫솔'을 18일 출시했다.

2080 키즈 치약&칫솔은 우리나라 어린이의 성장단계별치아특성을 고려해 맞춤관리가 가능하도록 치의학적으로 설계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F/W시즌 키워드 '아웃트로'

<Outdoor와 Metro의 합성어>



LF 제공

LF '아웃도어+신사복' 기능적 측면 더욱 강화시켜

K2, 알파인·케이투 키즈 등 다섯가지 콘셉트라인 구성

엠리밋, 브로드픽 재킷 등 올어라운드룩 선보여

이번 가을겨울시즌(F/W) 아웃도어 업계 키워드는 아웃트로(Outtro)가 될 전망이다.

아웃트로는 아웃도어(Outdoor)와 메트로(Metro)의 합성어로 도시인들이 일을 마친 후 곧바로 야외에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상품이나 의류를 통칭하는 말이다.

18일 LF(대표 구본걸)는 이번 가을겨울시즌 야외 활동에 특화된 디자인에서 다소 벗어나 일상에서도 실용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형 재킷·다운이 유행할 것으로 분석했다.

LF의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는 라이프 스타일형 아웃도어 재킷에 수트·코트 등의 신사복에서 멋을 내기 위해 전통적으로 쓰이던 헤링본 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능적 측면은 올해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첨단 신소재를 사용하고 인체공학적 유기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더 똑똑하고 활용도 높은 고기능성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게 LF의 설명이다.

라푸마는 기존의 고어텍스, 윈드스토퍼 등의 고기능성 소재뿐만 아니라 브랜드 자체 개발 첨단 소재(LXT)의 비중을 지난해보다 높이고 스타일과 더불어 기능적 측면을 강화했다.

K2(대표 정영훈)는 알파인, 익스트림 마운틴, 하이킹 퍼포먼스, 플라이워크, 케이투 키즈 등 5가지 콘셉트 라인을 구성했다.

알파인·익스트림 마운틴은 전문 등산 아웃도어 라인이다. 전문 산악용 'EXM 아쿠아벤트 재킷', 산행뿐만 아니라 간절기 시티룩으로 활용이 자유로운 초경량 슬림다운 재킷 '마조람 라이트' 등이 있다.

하이킹 퍼포먼스는 태양열을 이용해 보온효과를 한층 높여주는 '하이킹 쏠라필 패딩 재킷'이 대표적이다. 나일론 20데니아 경량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이 가볍다. '플라이워크'는 가벼운 야외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코디할 수 있는 스포티즘 캐쥬얼 아웃도어 라인이다. 걸으면서 습기까지 배출하는 워킹화 '옵티멀 브리드'와 입으면 향기가 나는 '플라이워크 아로마 다운 재킷' 등이 있다.

엠리밋(대표 한철호)은 18일 전속모델인 임시완과 정은지의 가을겨울시즌 화보를 통해 아웃도어와 스포츠, 도심을 아우르는 올어라운드룩을 선보였다. 브로드픽 재킷은 엠리밋의 스테디 셀러이자 시그니처 재킷으로 여행, 캠핑, 러닝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방풍·투습 기능성 소재 '윈드엣지'를 적용해 비와 바람을 막아주고 체온을 유지해준다는 설명이다. 또 투습 기능이 우수해 땀을 원활히 배출해주어 옷 안이 땀으로 젖지 않아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맵핑 재킷'은 우븐과 져지 소재를 믹스매치해 보온성이 필요한 몸판에는 우븐 퀼팅, 신축성이 필요한 겨드랑이와 소매 부분은 져지 소재를 사용했다.

김지혜 라푸마 CD(Creative Director)는 "방풍·방수·보온 기능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커지는 가을겨울 시즌, 아웃도어만이 갖는 탁월한 기능성과 더불어 스타일까지 챙기는 것이 핵심"이라며 "최첨단화되는 기능과 상반되게 디자인 면에서는 신사복의 디테일이 첨가되는 등 보다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요소가 각광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롯데 향한 '재벌개혁 5대 요구안'

중소상인·시민단체 등 롯데에 요구안 발표

중소상인·노동자·시민사회단체들이 롯데를 향해 '재벌개혁'을 강하게 외치고 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 위치한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앞에는 '롯데 재벌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생연대 등 15개 내외의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롯데를 향한 개혁요구 발언과 함께 구체적인 요구안을 롯데 측에 직접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요구안의 내용은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간접고용 전환 근로자 조건 개선 ▲하청업체·대리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생 체계 구축 ▲롯데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 ▲롯데시네마의 담합 및 부당행위 문제 해결 등 5가지다.

이는 최근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국내 재벌개혁이 이슈로 떠오르자 사건의 당사자인 롯데를 향해 이같은 요구안을 공동 제안하게 됐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측에 따르면 해당 요구안은 롯데그룹 부장급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령해 갔다.

주최 측은 "이번 롯데 사태 중에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는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며 "파렴치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부족하다 그동안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노동착취·중소상인 시장파괴·소비자기만과 우롱 등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18일 롯데홀딩스 주총 후 발표한 롯데 측 입장 전문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을'(乙)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눈앞에 떨어진 불만 끈다는 발상으로는 롯데그룹의 전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minus@

호텔서 누리는 뮤지컬 데이트

스탠포드 호텔

9월 'Culture Love' 패키지 '사랑하면 춤을춰라' 2매 제공



스탠포드호텔(총지배인 왕창근)은 9월 한달간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춰라'와 함께하는 'Culture Love' 패키지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Culture Love 패키지 A는 더블 또는 트윈 객실 1박과 함께 조식뷔페 2인, 수영장·사우나 2인, 사춤뮤지컬티켓 2매가 제공된다. 패키지 B는 주니어스위트 객실 1박과 조식뷔페2인, 수영장·사우나 2인, 사춤 뮤지컬 티켓 2매가 증정된다.

패키지 가격은 각각 16만4000원과 19만4000원(VAT 별도)이다.

'사랑하면 춤을 춰라' 댄스 뮤지컬은 젊은 세남녀의 성장 과정과 삶을 춤으로 보여주는 넌버벌 형식의 댄스 뮤지컬에 힙합과 재즈, 현대무용, 브레이크 댄스 등을 유쾌하게 배합시킨 작품이다. 종로 시네코아 사춤전용관에서 공연된다.

2004년 10월 이후 전국 70여 개 도시 초청공연과 LA, 일본, 중국, 영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4000여회 이상 공연으로 관람객 15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내달 6일까지 왓슨스서 전품목 반값

리더스코스메틱

베스트 카테고리 2년째 수상



산성앨엔에스의 리더스코스메틱(사장 박철홍)이 내달 6일까지 GS왓슨스에서 전 품목 50% 할인 상반기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리더스코스메틱이 GS왓슨스에 입점 판매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전 품목 반값 할인 행사다. 총 37종의 다양한 마스크팩 제품 모두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올 여름 신제품인 워시오프팩 10종을 비롯해 리더스코스메틱의 대표 베스트셀러 제품인 '리더스 인솔루션 아쿠아링거 스킨 클리닉 마스크' 등 다양한 마스크 팩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리더스코스메틱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리더스 특별 할인 기획전은 2년 연속 베스트 카테고리 프로덕트 부문 수상을 기념하며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리더스 사상 첫 반값 세일 이벤트인 만큼 리더스의 다양한 마스크팩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실속있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더스코스메틱의 공식 SNS(https://www.facebook.com/leaderscosmetic)에서는 20일까지 워시오프팩 출시 기념 설문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눈 내리는 안압지, 韓 관광사진 대상 품었다

관광公 사진 공모전

1만점 출품 최종 100점 선정 수상자에 총 4330만원 상금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겨울 동화 속 안압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세계 속에 한국의 가치와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이미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43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의 핵심 매력을 알릴수 있는 5가지 키워드 5K(K-Food, K-Wave, K-Spirit, K-Place, K-Style)를 주제로 진행됐다.

공모기간 동안 내·외국인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1만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사진 공모전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작 심사는 관광홍보성, 활용성, 독창성, 예술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했다. 최종 100점이 선정된 가운데 수상자에게는 총 43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한겨울 동화마을 같은 풍경 속에 천년 고도의 야경을 따뜻한 느낌으로 담아낸 전우석의 '겨울동화 속 안압지'가 선정됐다. 활기가 넘치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잘 표현한 임양수의 'Colors of life'가 금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특별상이 신설됐으며 '외국인 부문'과 '네티즌이 뽑은 사진'을 시상할 계획이다.

입상한 작품들은 관광공사 온라인 사진갤러리(http://gallery.visitkorea.or.kr)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된다.

자세한 수상 내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 > 알림 > 공모전 > 관광사진 공모전 > 수상작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시상식과 전시회는 오는 9월 중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세부퍼시픽항공, 4개국 블로거 '필리핀 배낭여행' 성료

우승 일본팀엔 홀리데이 패키지



왼쪽부터 세부퍼시픽 후안더러 챌린지 참가자 쑨 양, 리아오 시룽, 진 카멜라, 스테파니 애크워스, 히데카즈 다나카, 이쿠마 나카가와, 이레네, 펜넬.

세부퍼시픽 항공은 '세부퍼시픽 후안더러 백패커 챌린지'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최대 항공사 세부퍼시픽항공이 필리핀 관광청과 파트너십을 맺고 호주, 중국, 일본, 한국의 여행 블로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4개국을 대표해 선발된 총 4개 팀 8인의 참가자들이 마닐라, 팔라완, 세부, 다바오, 보라카이 등 필리핀 내 5개 지역을 여행하며 열띤 챌린지 경합을 펼쳤다.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한 한국 팀에게는 '세부퍼시픽 후안더러 편 어워드'가 수여됐다. 최종 우승을 차지한 일본 팀에게는 부상으로 필리핀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왕복항공권, 호텔 2박 숙박권과 미화 300 달러의 여행경비가 포함된 홀리데이 패키지가 1인당 2매씩 제공됐다. /최치선 기자



왼쪽부터 이미룡 서울시 팀장,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박형기 LG전자 실장, 김진숙 동방사회복지회장이 17일 동방사회복지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입양대기아동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 제공

다이어트 하고, 기부도 하고… 생보재단 '일석이조 봉사' 실천

'건강나눔 도심걷기' 이벤트 시상금 50% 복지재단 후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건강과 봉사 두마리 토끼를 잡는 이색 봉사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명보험재단과 LG전자는 지난 17일 오후 동방사회복지회 대강당에서 입양대기아동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에서 750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의 후원금은 생명보험재단에서 추진한 '건강나눔 도심걷기' 프로젝트에서 1·2위를 수상한 LG전자팀이 시상금 1500만원 중 50%를 기부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입양대기아동의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건강나눔 도심걷기' 프로젝트는 생명보험재단이 서울시와 함께 3050 직장인의 대사증후군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15주간 11개 기업의 대사증후군 고위험군 직장인 120명에게 건강도시락과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영양사의 건강식단 교육, 트레이너의 운동습관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LG전자가 기부한 후원금이 동방사회복지회 아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생명보험재단은 앞으로도 생애보장정신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star bag

성황 이룬 대만 팬미팅



배우 **박신혜**가 지난 16일 저녁 대만에서 '2015 드림 오브 앤젤'이라는 타이틀로 두 번째 단독 팬미팅을 열고 현지 팬과 만났다. 라이브 무대와 드라마 명장면 재현 등으로 팬과 교감했다.

소아암 환자 위해 기증



배우 **주다영**이 소아암 환우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증했다. 주다영은 18일 소속사를 통해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증하게 됐다"고 전했다.

악플러에 강경대응



배우 **배용준**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했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18일 "배용준의 결혼과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30여명에 대해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홍콩 단독 콘서트 마쳐

그룹 **엑소**가 단독 콘서트 투어 '엑소 플래닛 #2-더 엑솔루션'의 홍콩 공연을 마쳤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열린 홍콩 공연은 2만여 관객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박재범과 신곡 발표

가수 **사이먼 도미닉**이 신곡 '원앤온리(₩&ONLY)'를 21일 발표한다. 힙합 레이블 AOMG를 함께 이끌고 있는 박재범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프로듀서 그레이가 공동 프로듀서를 맡았다.

편안함·설렘 가득…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다

영화 '뷰티 인사이드' **한효주**



작품이 거듭될수록 성장하는 배우를 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다. 한효주(28)가 그렇다. 단아하고 예쁜 이미지로만 각인됐던 그녀는 어느 순간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연기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

신선함·독창적 소재에 욕심나 출연
21명의 배우와 호흡 부담보다 재미

여러작품 통해 꾸준히 배우고 성장
자연스러운 연기, 자신감 생겼어요

오는 20일 개봉하는 영화 '뷰티 인사이드'(감독 백)는 소재와 설정이 독특한 판타지 멜로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뀌는 남자 우진과 그가 사랑한 여자 이수의 이야기다. 김대명·이범수·박서준·김상호·천우희·우에노 주리 등 21명의 배우가 우진을 연기했다. 이들과 사랑에 빠지는 여자 이수는 한효주다.

영화화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CF 출신 감독의 데뷔작이라는 점에서 출연 결정이 고민됐을 법도 하다. 그러나 한효주는 "시나리오의 신선함과 소재의 독창성에서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21명의 배우와 호흡을 맞춘다는 사실도 부담이나 걱정보다 재미로 다가왔다. 보통 하루에 끝날 대본 리딩을 1주일 하는 동안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는 예감도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작업은 실제 영화 속 이수처럼 신기함의 연속이었다.



영화는 21명의 배우가 한 사람이 돼가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더 눈길이 가는 것은 바로 한효주의 연기다. 다양한 배우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아드는 모습이 놀랍다.

설렘과 행복, 아픔과 상처 등 연애할 때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을 일상적인 톤으로 표현한 연기도 눈에 띈다. 박서준이 연기하는 우진과의 첫 데이트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양치질을 하는 이수가 보여주는 설렘 가득한 표정은 한효주의 빛나는 연기 장면 중 하나다. 그 속에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다.

"그게 사실 어려운 연기에요. 좁은 화장실에 카메라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저 혼자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웃음).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였다면 그건 제가 연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일 거예요. '쎄시봉'의 민자영이 새침한 여대생 캐릭터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 연기했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이수의 캐릭터에 들어가 연기했거든요. 최대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데뷔 이후 한효주는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왔다. '뷰티 인사이드'로 돌아온 지금, 한효주는 자연스러운 연기에 자신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예전에는 A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으면 B가 나와서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A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A-1, A-2, A-3처럼 다양한 감정도 선택해서 연기할 수 있고요.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우진과 이수의 특별하면서도 공감 가는 로맨스가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것은 한효주의 자연스러운 성장이 연기 속에 잘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성장과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자연스러운 연기에 자신감이 생긴 지금 한효주가 바라는 것은 극적인 감정 표현이다. 그래서 선택한 영화가 지금 촬영 중인 '해어화'다. "지금까지 맡은 캐릭터 중 가장 어려운 역할이에요. 연기 스타일도 달라야 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한 번의 성장을 보여줄 한효주의 다음 활약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맞춤형 보컬'과의 전쟁 선포

'슈퍼스타K7' 내일 첫 방송
지원자 174만명 예선 마쳐

7번째 시즌으로 돌아오는 엠넷 '슈퍼스타K'가 보다 높아진 심사기준을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슈퍼스타K7' 제작발표회에서 심사위원 백지영은 "최근 한 곡만 열심히 해서 오디션 때 소화해내는 '맞춤형 보컬'이 생겨나고 있다"며 "학문처럼 배운 듯한 느낌이 드는 출연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성시경은 "입시용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그걸 넘어서 내 노래를 할 수 있는 참가자를 찾으려고 했다. 사람마다 그만의 매력을 평가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 김범수는 "올해는 실력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무대 자체를 프로듀싱할 수 있는 능력자도 나타났다"며 "이제 심사를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좀더 높은 관점에서 지켜보고 더 디테일하고 꽉꽉하게 심사해야 할 것 같다. 그만큼 실력자들이 많다"고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가수 김범수, 백지영, 성시경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CJ E&M에서 열린 '슈퍼스타K7'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번 시즌은 첫 시즌부터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마두식 PD가 처음으로 연출을 맡았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점도 눈에 띈다. 10대들을 위한 '10대 예선'을 마련했다. 기존의 ARS 지원 방식보다 10배 이상 빠른 온라인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방식을 간소화했다.

1차 지원 단계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해 국내외 방방곡곡을 찾아 '글로벌 예선'도 진행했다. 이미 약 174만명의 지원자들이 예선을 마쳤다.

'슈퍼스타K7'은 오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하희철 기자 hhc@


취.향.저.격
코믹로맨스연극 NO.1
현실연애의 모든것!
연애의 목적
연극
2015.02.12 ~ OPEN RUN 대학로 올래홀
문의 02-764-8760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INTERPARK티켓
연극 연애의 목적 검색

노승열·최경주, PO 마지막 티켓 잡을까



노승열

우즈 등 윈덤 챔피언십서 PGA투어 PO티켓 놓고 설전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PO) 막차를 타기 위한 골퍼들의 경쟁이 펼쳐진다.

오는 2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1·7071야드)에서 개막하는 윈덤 챔피언십은 총상금이 540만 달러(약 63억원)밖에 되지 않는 B급 대회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위해 페덱스컵 랭킹을 125위 안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다.

오는 28일 개막하는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 대회 출전 자격을 얻은 한국 선수와 교포 선수는 대니 리(25·10위), 케빈 나(30위), 배상문(29·34위), 제임스 한(34·35위), 존 허(25·95위)까지 5명이다. 이들 중 존 허는 페덱스컵 랭킹을 끌어올리기 위해 윈덤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다른 4명은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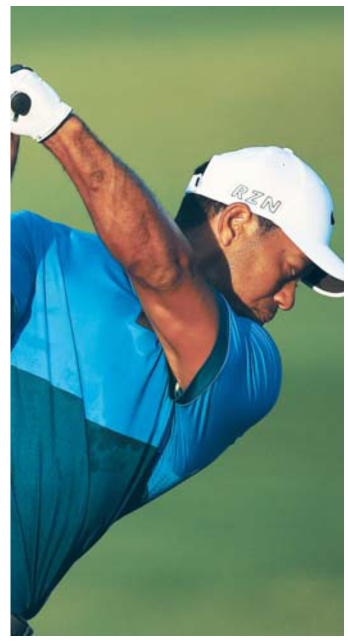
하지만 127위 노승열(24·나이키골프), 128위 박성준(29), 137위 김민휘(23), 147위 최경주(45·SK텔레콤)는 플레이오프 출전 티켓을 잡기 위해 전력 투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회에서 페덱스컵 랭킹 125위 안에 들지 못하면 이번 시즌 PGA 투어를 접어야 한다.

지난해 PGA 투어에서 생애 첫 승을 올리며 상승세를 탔던 노승열은 올해 세인트주드 클래식에서 공동 3위로 최고 성적을 냈을 뿐 중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이번 시즌에 데뷔한 박성준과 김민휘도 세계 골프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한국 골프의 맏형 최경주도 18차례 대회에 출전, 한번도 톱10 안에 들지 못하는 부진을 거듭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성적이 부진하다. 페덱스컵 랭킹 187위로 밀린 우즈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잠시 고민을 했지만 결국 출전을 결정했다. 우즈는 이 대회 첫 출전이다.

이들이 시즌 마지막 정규대회에서 성적을 올려 '가을 잔치'의 초대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타이거 우즈

TV 하이라이트



천상천하 유아독존 총출동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독종 인생 특집이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간 독소들을 만나본다. 보기만 해도 '짠내'가 풍겨오는 짠돌이 심형탁은 2003년 전 여친에게 받은 속옷을 아직도 입는다고 고백한다. 3년 간 한 번도 쇼핑하지 않은 사연, 사우나에서 자기자신과 겨루다 뇌진탕 위기에 처했던 에피소드도 공개한다. 소녀시대 서현은 수지 대신 영화 '건축학개론'의 여주인공이 될 뻔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힌다.

◆ JTBC '슈가맨을 찾아서'

오후 11시

'국민MC' 유재석과 유희열이 추억의 가수를 찾아 나선다. 과거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선사한 '슈가맨'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구운 고기의 끝판왕 '스테이크'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야성미 넘치는 상남자 지상렬과 셰프의 아내가 된 김새롬이 함께 한다. 내 입맛에 딱 맞는 스테이크 주문 가이드를 공개한다.



◆ KBS1 '꿈을 쏘다'

오후 7시 30분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다문화 청소년들의 현실을 공개한다. 다문화 학생 15명이 함께 하는 제주도에서의 4박 5일, 거침없고 솔직한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정리=하희철 기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908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26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다문화 청소년 힐링캠프, 꿈을 쏘다	50 오늘부터 사랑해 (94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48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47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71회)	30 생생정보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68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재) 20 스쿨랜드 (재) 30 세계의 교육현장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세계석학이 본 대한민국 경제 100년 4부작 55 숨터	00 어셈블리 (11회)	00 밤을 걷는 선비 (13회)	00 용팔이 (5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빌리 엘리어트>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광복 70년 특별기획]학교 교육 백년사	
24시	35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획 다큐 <세계대전>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25 지식채널e (재) 30 한국영화특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재)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20 비정상회담 (59회) (재)	20 집밥 백선생 (14회) (재)	10 오늘 뭐 먹지? (17회) 40 올리브쇼 2015 (20회)		20 터미네이터 2	◆ 프로야구 (18:30) 넥센 vs KT (SPOTV+) 삼성 vs 두산 (MBC SPORTS+) NC vs 한화 (SKY SPORTS) LG vs 롯데 (SBS SPORTS) SK vs KIA (KBS N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16회) 55 JTBC 뉴스룸	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61회)	50 현장토크쇼 TAXI (375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34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6회)	5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스페셜 (2회)	00 <퍼펙트 프레데터>북극곰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14회)	40 수요미식회 (30회)	50 2015 테이스티로드 (26회)	00 <와일드 헌터>3부. 비장의 무기를 가진 포식자	00 무비스토커 (7회)	
22시			50 주문을 걸어 (4회)	00 항공사고 수사대: 에어 크래쉬 (12회)	20 무비스토커:금주의 영화	
23시	0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을 찾아서 (1회)	00 내친구와 식사를 합시다 (3회)		00 <2차 세계 대전>유대인 대학살		
24시	20 비정상회담 스페셜 (59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6회) (재)	00 로맨스가 필요해 2012 (11회)	00 위키드 튜나 4 (7회)	40 살인의 추억	

KCC, the supposed ‘white knight’, is in dilemma having a huge loss

딜레마 빠진 삼성물산 백기사 KCC

KCC, the supposed ‘white knight’, is in dilemma having a huge loss. KCC had assisted the merger of Samsung corp. and Jeilmogic at the cost of more than 600 billion won.

Later on, the stock values of the three companies, Samsung Corp, Jeilmogic and KCC dropped down at the same time causing the estimated loss of about one trillion Won. Jung Mong Jin, the president of KCC, tried to defend the company‘s stock value by having his own children buy its stock shares, but unfortunately, it didn’t work as well.



정몽진 KCC 회장

KCC closed very steadily at 398,000 Won in the stock market just like the previous day. The stock value of KCC has fallen by 27.89% since the 16th of July, the day before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of the three companies.

In the same period of the time, total amount of market price dropped from five trillion and 807billion Won to four trillion and 187 billion Won, losing One trillion and 620billion Won.

That day, Samsung Corp recorded 49,750Won, 0.5%(250Won) lower, and Jeilmogic recorded 145,000Won, dropped by 0.34% (500won) compared to the previous day. The Stock values of Samsung Corp. and Jeilmogic had marked its peak on the 17th of July with the issue of the merger, and they kept falling up until now by 30.71% and 28.32% each.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삼성물산에 ‘백기사’를 자처한 KCC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으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KCC는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거들었다.

하지만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KCC 주가가 동반 하락하며 1조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입게 됐다. 급기야 정몽진 KCC 회장은 자녀들까지 동원해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CC는 전날과 같은 39만8000원에 보합 마감했다. KCC 주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 전날인 지난달 16일 55만2000원에서 현재까지 27.8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5조8070억원에서 4조1870억원으로 1조6200억원이 증발했다.

이날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0.5%(250원) 내린 4만9750원, 제일모직은 0.34%(500원) 떨어진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지난달 17일 합병 이슈로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까지 30.71%, 28.32% 역주행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1			5	
	3				2			4
1		4			7	2	6	9
			9		5	8		
4	5						3	7
		9	7		3			
9	7	1	8			3		6
3			2				7	
	2			7				

1	9	5		7	3			
7			2					
						5		
	8	2	3			1		
4	3		6		1		8	5
		7			9	6	2	
		4						
					4			8
			9	6		2	4	7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2	9	6	4	1	8	7	5	3
5	3	7	6	9	2	1	8	4
1	8	4	5	3	7	2	6	9
7	6	3	9	4	5	8	1	2
4	5	2	1	8	6	9	3	7
8	1	9	7	2	3	6	4	5
9	7	1	8	5	4	3	2	6
3	4	8	2	6	9	5	7	1
6	2	5	3	7	1	4	9	8

1	9	5	4	7	3	8	6	2
7	6	8	2	9	5	4	3	1
2	4	3	1	8	6	5	7	9
6	8	2	3	5	7	1	9	4
4	3	9	6	2	1	7	8	5
5	1	7	8	4	9	6	2	3
8	7	4	5	3	2	9	1	6
9	2	6	7	1	4	3	5	8
3	5	1	9	6	8	2	4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컴퓨터 관련 직업운과 결혼운이 궁금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2017년 결실

pluto 여자 90년 3월 15일 음력 묘시생

Q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직장이 편하고 좋지만 성취감이 없어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취감을 찾지 못한 대신에 컴퓨터를 전공으로 공부해 이를 토대로 한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에 흥미가 생겨 좀 더 욕심을 내서 전산직 공무원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제 사주에 컴퓨터 관련 직업이나 공무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직 어리면 어린 나이지만 이성교제 경험이 적어 언제쯤 이성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될지도 고민됩니다. 선생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 성취감은 어떤 변화에 의해 이뤄지는 줄 알고 있으나 이직하는 변화보다는 자신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주팔자란 태어난 연(年) 월(月) 일(日) 시(時)를 바탕으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학문인데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연 월 일 시주에서 pluto님은 시간에 묘(卯:꽃)로 구성돼 있습니다.

‘논밭에 곡식이 자라고 있는 모양’으로 만물을 품고 키우는 자애로운 형상으로 봄에 태어났으니 모든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과 적당히 내리는 빗물이 필수적인데 3월생으로 수기(水氣:물)가 즉 재성(財星:재물)이 풍족한 남자를 만납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 길게 이어지는 인연은 안 될 것이지만 특히 2016년 6월 세운에서 들어오는 운을 기대해보면 성품이 자상하고 세밀하여 기술 기예 뛰어나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만나기는 하는데 공부를 하겠다면 소중한 시간을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자사주에서 관성(官星: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이성이나 관직을 나타냄)이 적절히 있어야 하고 운에서 승발을 해야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고 공무원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포태법상 관성이 ‘갓 태어난 아기가 목욕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격’이므로 시험 운이 강하지 못하니 중도에 접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직장은 본인 계획대로 해나간다면 2017년 지나면서 그 분야에서 발전해 나가게 되니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시고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도 그때가 돼야 할 것입니다. 2017년 도는 어린 남자와 인연되기도 하며 도화(桃花)에 구추방해(九醜妨害)하여 잦은 연애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19일 (음 7월 6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60년생**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2년생** 여행을 통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84년생** 뜻밖에 행운을 얻게 됩니다.

소 — **49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입니다. **61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73년생** 후배들을 만나 금전을 지출하게 됩니다. **85년생** 감정에 빠지면 큰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호랑이 — **50년생** 가는 길이 험해 어려움이 따릅니다. **62년생** 여행은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하세요.

토끼 — **51년생**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63년생** 몸조심, 말조심 해야 합니다. **75년생** 술자리에서 과음은 독이 됩니다. **87년생**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용 — **52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64년생**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76년생**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88년생** 조그만 인연이 많은 날 입니다.

뱀 — **53년생** 서쪽과 북쪽 방향에 가지 마세요. **65년생** 집 밖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77년생** 주변에 행복한 일이 가득합니다. **89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한번 더 고심하세요.

말 — **54년생** 가족과 고민을 상의하세요. **66년생** 분수를 지켜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78년생** 사업을 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90년생** 미뤄놨던 일을 계획해 보세요.

양 — **55년생** 여행계획이 있으면 당장 떠나세요. **67년생** 주위에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79년생** 다른 사람이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91년생** 큰 어려움이 있으니 모든 것에 주의하세요.

원숭이 — **56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중하기 어려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80년생** 하는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됩니다. **92년생**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관찰해보세요.

닭 — **57년생** 혼자만의 힘으로 큰 일을 해결합니다. **69년생** 평화로운 오후를 보냅니다. **81년생** 나태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93년생** 사소한 일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개 — **58년생** 밝은 햇빛이 머리 위에 떠 있으니 모든 사람이 우러러봅니다. **70년생** 재물운이 안좋습니다. **82년생**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94년생** 재물이 들어오지만 그만큼 지출합니다.

돼지 — **59년생**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71년생** 에너지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83년생** 노력의 대가를 보게 됩니다. **95년생** 연인에게 선물을 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만화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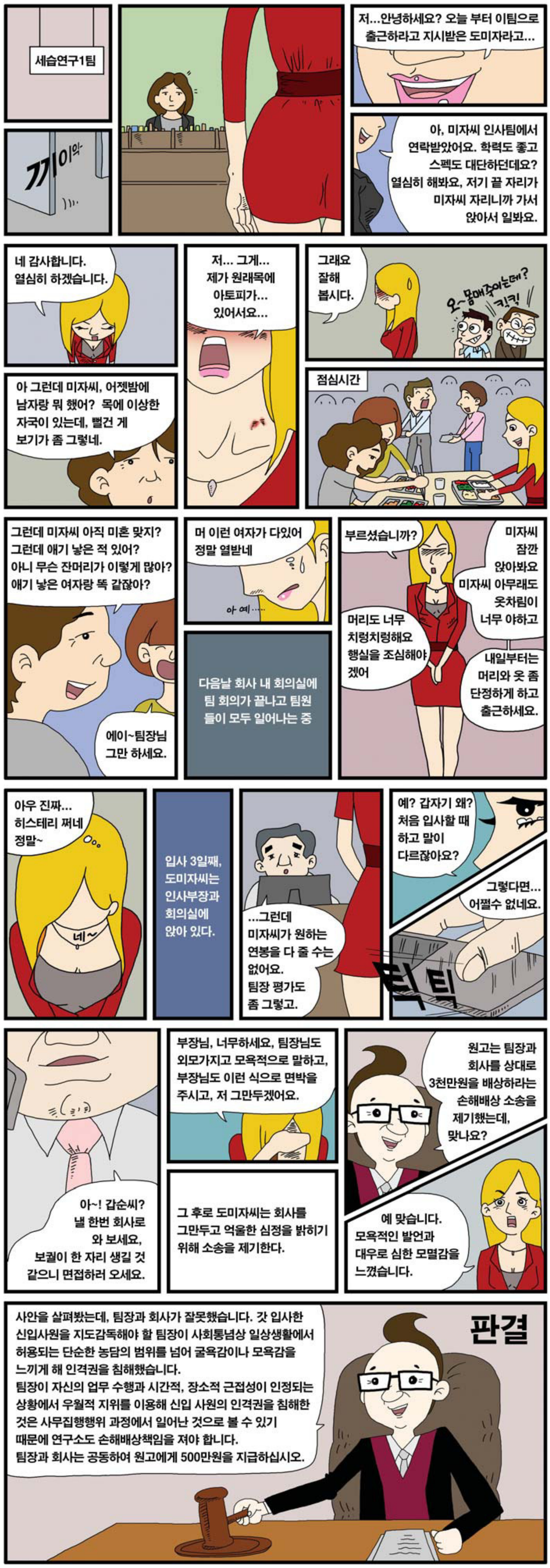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3화 성희롱>

관련 판례 서울중앙2014가단19767

관련 법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튜닝산업연구소가 국내 튜닝시장 살릴 것



김필수의 차 이야기

최근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자동차 튜닝산업연구소 개소식이다. 전국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올라와 함께 한 행사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산하 연구소가 별도의 등기까지 마치고 구색을 갖춰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현 정부에서 자동차 튜닝산업을 창조경제로 선정하여 진행했으나 제대로 된 브레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이 부족했다.

국내의 실질적인 자동차 튜닝산업 규모를 선진화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략과 마스터플랜이 없었다.

드디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시작점이 결정됐다고 할 수 있다.

튜닝산업연구소가 자리한 아주자동차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 특성화 대학이다. 자동차 튜닝 전공은 물론 자동차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특화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학 소속 교원 50여명과 함께 외부 산학연관을 대표하는 110여명의 연구위원이 함께 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튜닝산업연구소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실정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한국형 선진 마스터플랜을 수행할 것이다.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큰 구조변경제도를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방향을 잡을 것이다.

국토교통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양질의 튜닝 제품을 인증해 공동 브랜드화할 방침이다.

해외 전시장을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은 물론 국내의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식 '히든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자동차 튜닝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 후반기부터는 실질적인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선정기회도 마련한다. 유기적으로 대학과 외부 연구위원을 모아 각종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연구소 활성화다.

각종 시험 시설은 전국적으로 자동차 관련 대학 시설을 함께 쓸 수 있어서 성능이나 시험 등 여러 분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 제품에 대한 연구위원들의 제품 발굴과 상용화 작업은 물론 대학 시험시설을 활용한 우수 제품 출시도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와 협회, 그리고 연구소가 공유할 수 있는 각종 정보와 현황 등이 필요하다.

중심점 역할을 하는 협회의 역할도 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필요하면 관련 기업을 대학 내에 유치해 튜닝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몇 개 튜닝 전문 기업이 모여서 제품화에 성공하고 그 발판을 연구소가 지원한다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은 3년째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중앙정부의 방향과 방법이 미약하고 의지도 약해 시너지를 못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자동차와 튜닝산업 전반을 보는 시야가 좁아서, 길고 크게 보는 마스터플랜이 없다.

현 실태파악과 향후 체계적인 발전 방안은 당연히 필수적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 튜닝산업 연구소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번 정부 내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내후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자동차 튜닝산업연구소의 본격 개소가 제대로 된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社說

재벌총수의 국정감사 출석

집권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올해 국정감사에 재벌총수 증인소환 의사를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선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총수 증인 출석문제는 과거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다. 재벌에 관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지만, 대체로 여당은 반대해 왔다. 그럴 때마다 재벌총수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받곤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재벌총수 역시 국정감사 때만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해외로 나갔다가 국감이 끝나면 귀국하곤 했다. 총수의 국감출석을 반대해 주는 의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에 비해 원유철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대단히 큰 진전이다. 사실 올 들어 재벌총수나 그 일가를 국감장에 불러야 할 사안은 많이 발생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KCC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 등은 총수의 설명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 메르스가 창궐하게 된 데도 재벌이 한몫을 단단히 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재벌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책무이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망신을 주기 위해 총수를 불러서도 안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을 부르는 것도 곤란하다. 부를 사람만 불러 차분하고 냉정하게 문제를 짚어보면 된다. 재벌총수를 올해 국감에 세운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진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새삼 확립되기 때문이다. 뒤늦게 꼬리를 감추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초등학교 앞 외상 장부… '올바른 용돈 사용법이 먼저'



기자 수첩
복 현 명
<사회부>

얼마전 기자가 취재 중에 날씨가 너무 더워 잠시 이를 피해가려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분식점에 들린 적이 있다.

분식점에서 음식을 시킨 후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장부들이 놓여 있어 분식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외상 장부'라고 했다.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외상 장부'의 내용을 보니 음식을 먹은 날짜와 음식의 종류,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일부 초등학생들이 소위 '장부에 달아놓고' 간식을 사 먹고 있는 것이었다.

'외상장부' 뿐만 아니다.

학교 앞 일부 분식점에서는 '선결제 또는 후결제' 방식도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 앞 분식점에는 '선결제, 후결제 가능'이라는 안내와 함께 부모가 미리 결제를 하면 그 금액 만큼 아이들이 분식을 먹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었다.

10살과 9살 초등학생 자녀를 두었다는 맞벌이 주부 양모(45)씨는 "돈을 주면 잃어버리거나 나쁜 학생들에게 뺏길까 걱정돼 학교 근처 분식점에 미리 결제를 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인다"고 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맞벌이로 바쁜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용돈 사용법과 평가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외상장부가 오히려 초등학생들에게 돈의 의미를 퇴색시켜 절약정신을 희미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일부 초등학생들에게만 국한된 '외상문화'일지라도 외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사행심리나 신용의식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들의 용돈 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BMW, 계약했더니 돈을 더 내라고?

소비자 119

BMW 딜러사 직원의 화술에 소비자가 수백만원을 더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차량 계약부터 성사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일단 팔고 보자는식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보배드림에 따르면 신모씨는 6월 BMW 520d 모델을 딜러사를 통해 계약했다. 당시 신씨는 딜러사로부터 이달 차가 출고될 것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차는 신씨에게 인도되지 않고 두 달 연기됐다.

두 달 후인 8월 신씨는 딜러사로부터 250만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씨가 계약한 520d 모델이 8월에 출고됐으니 할인폭이 줄어든 이달 프로모션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씨는 "6월에 계약하고 같은 달에 차가 출고된다고 들었는데 8월에 차가 출고돼 프로모션도 바뀌었으니 돈을 더 달라고 했다"며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BMW에 따르면 프로모션의 적용원칙은 차량이 출고되는 달 기준이다. 인기가 많은 차종을 그 달의 프로모션을 보고 계약했더라도 출고가 월 단위로 늦어지면 출고되는 달의 프로모션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매달 다른 프로모션 때문에 소비자는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BMW의 한 딜러는 "프로모션 적용원칙은 출고되는 달 기준이다. 이 부분은 모든 딜러사와 전시장에 공통 적용된다. 다만 딜러가 소비자에게 계약하는 달에 출고가 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말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려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딜러에게 재고 여부, 언제 출고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8월 프로모션이 200만원 할인인데 9월에는 할인폭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프로모션이 매달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불복 같은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출고 기준 할인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했는지 확인하고 꼼꼼히 작성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정용기 기자 yonggi@

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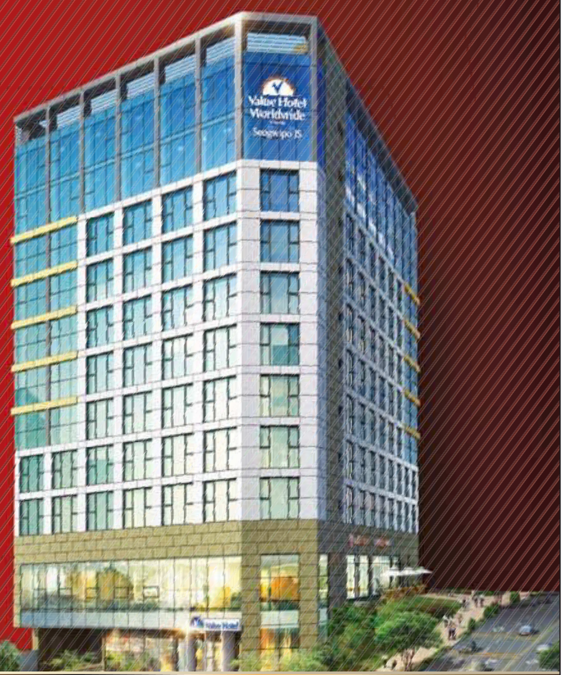
◇현대차그룹 △부사장급 전보 ▲현대기아차 중국전략담당 담도굉 ▲북경현대기차 총경리 이병호 ▲동풍열달기아 총경리 김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종민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기획관실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 강성태 △과장급 전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파견 신용식 ▲한국정책방송원(과장 직위) 권오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정진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박정훈
◇법제처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 구본규 ▲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 이정규
◇관세청 △과장급 전입 ▲특수통관과장 유영한 △과장급 전출 ▲외교부(주태국대사관 1등서기관) 이철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승진 임용제청 ▲공직감찰본부장 정경순 ▲감사교육원장 이도승
◇한국관광공사 ▲비서실장 정진수 ▲기획조정팀장 김성훈 ▲지역협력팀장 조홍준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장 ▲창원교육지원청 안병학 ▲통영교육지원청 김상권 ▲창녕교육지원청 곽권태
◇충북도 △4급 전보 ▲공보관 김선호 ▲진천군 전출(부군수 요원) 전원건
◇이투데이 ▲뉴욕 주재원(부국장) 남진우
◇신아일보 ▲ 경제산업부 부장 김흥수

제주도에서 가장 탐나는 자리인 서귀포 혁신도시와 강정택지지구 사이 –
세계 8대 호텔체인이 드리는 글로벌 호텔의 고수익 투자가치를 잡으십시오

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분양개시

다 드립니다

부대시설 : 실내수영장 / 사우나 / 휘트니스 / 고급컨벤션 /카페 테라스 / 호텔뷔페



Value Hotel Worldwide
by Vantage
Seogwipo JS

- ☑ 10년간 안전보장(공증)
- ☑ 10년간 연 15% 수익보장 (대출 50%기준, 이자5%이내 포함)
- ☑ 10년간 대출이자 전액지원
- ☑ 준공 후 100% 환불보장 (5년 후 부터 적용)



年10% 10년간 수익보장 | 年5% 10년간 이자지급 | 안전보장 공증 | 분양가 100% 환불 | 50% 중도금 무이자

서귀포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이전, 연 15% 확정수익 [대출 50% 기준, 5%이내 이자포함], 세계 8대 호텔체인의 운영노하우

제주의 모든 가치를 담은 고수익 호텔–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FUTURE OF ISLAND
위치가 그대로 투자수익으로 이어지는 제주 최고의 자리!
서귀포 혁신도시 앞에 미래가치가 집중됩니다

INVESTMENT OF ISLAND
최대 연 15% 확정수익을 드리는 고수익 호텔!
제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선사합니다

HIGHCLASS SERVICE
세계 8대 호텔그룹의 운영노하우와 서비스!
세계적인 전문 운영·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 약 금 안 내
청약계좌 : 외환은행 630-009732-07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아시아신탁(주)

02)2097-8850

·위치 : 서귀포시 법환동 745–5번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1,277.30㎡ ·규모 : 지하4층~지상10층 ·건축면적 : 938.42㎡ ·건폐율 : 73.47%(법정 : 80%) ·연면적 : 11,565.86㎡ ·용적률 : 701.00%(법정 : 1,000%) ·주차장 면적 : 824.08㎡
·외부마감 : 제주석, 화강석, 복층유리 ·주차대수 : 72대 설치 / 장애인주차 3대 ·공개공지 : 89.46㎡ (법정 : 1,277.30x7% = 89.41㎡ 이상)
·조경면적 : 208.25㎡ (법정 : 1,277.30㎡x 15%=191.60㎡ 이상)
·상기 위치도, 조감도, 단지조감도, 이미지사진, 아이소,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시행사 | (주)진성인터내셔널 | 시공사 | CHEONMA 천마종합건설 | 신탁사 | 아시아신탁 | 운영사 | Value Hotel Worldwide 밸류코리아 | 마케팅사 | (주)세종피엠씨